



항공정 진행물
25099 - 83246 - 44 - 98008

항공정

www.airforce.go.kr

제287호 / 2002. 5

공군본부

C O N T E N T S

지휘봉	차기전투기(F-X) 기종결정에 따른 우리의 다짐	3
공군은 지금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8
칼럼	저 푸른 하늘로! 저 높은 우주로!	9
기획특집/2002 한·일 월드컵	안전 월드컵, 공군이 책임지겠습니다	11
	생화학 테러가 발발할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14
/월드컵 16강 기원 메시지	하늘의 붉은 악마, 16강을 바란다	16
/월드컵 16강 기원 릴레이픽션	16전투비행단 장병들과 함께 가는 월드컵 16강!	19
기획특집/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항공기 매니아들의 대축제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22
/추억의 모형항공기대회	추억으로 날리는 모형항공기, 1979~2002	24
/공군모형대회 컴퓨터 비행시뮬레이션대회	"이번엔 실체비행이다!!"	26
/내 기억 속의 모형항공기대회	대한민국 공군 필승! 외 2건	28
Air Power	정밀공중공격(3) - 정밀공중공격 시스템	30
세계의 항공기 열전/러시아편	다기능 수륙양용기 BE-200	33
Zoom In	국내 항공우주의학의 메카 - 공군 항공의료원	34
문화가 현장	이발소 그림, 키췌의 향수와 위안	36
AIR@ARTS	바그너, 발퀴레의 비행	38
노래의 날개 위에	분달리허가 부르는 '시인의 사랑'	41
지구촌 여행	세계적인 장수촌, 훈자왕국	42
찾아가자 인터넷	재미있는 컴퓨터, 컴퓨터랑 친해지기	45
책으로 읽는 세상	풀어라, 그러면 다시 만든다	46
마음의 양식	위대한 가르침	47
의무상식	대기오염과 황사	48
가상전망대	싱그러운 초록빛 5월에	49
기자극장	가라사대, 복수는 우리 것	50
Green Air Force	환경의 발견	51
만나고 싶었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그녀는 비행단으로 돌아온다	52
	공군의 미래 청사진, 제가 그려내겠습니다	53
公報 25時	풋내기 공보초년생 국방일보 방문기	54
이달의 문화인물	박수근(朴壽根)	56
이달의 호국인물	육탄 10용사	56
이달의 독립인물	송학선(宋學先)	56
항공계 소식	월드컵 특별 전세기 운항 외 3건	57
알립니다	제8회 항공전력 국제학술 심포지엄 외 3건	58
월드컵 특집 퀴즈로! 퍼즐로!		59





차기전투기(F-X) 기종결정에 따른 우리의 다짐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대 욱

친애하는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열망해온 차기전투기 기종이 마침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 공군의 오랜 숙원인 21세기 전략형 공군력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을 전 장병과 더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 공군 장병은, 금번의 결정을 적극 수용함은 물론, 보다 자신 있고 성숙된 자세로 사업 종료 시까지 본연의 임무완수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F-X 기종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통일된 의견과 확고한 신념으로 사업의 성공적 종료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금번 차기전투기사업은, 우리 공군의 오랜 숙원인 전략형 공군력 건설의 試金石을 놓는 중차대한 국방 투자사업으로, 미래 전략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입니다.

F-X기의 도입으로 우리 공군은,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 및 한반도 주변의 불특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통일 한국군의 기반전력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존보유기종의 성능 제한으로 애로를 겪었던 전·평시 임무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보강됨으로써 전쟁수행 능력의 향상과 함께, 해상 교통로 확보 및 국지분쟁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절충교역을 통해 2015년 이후 한국형 전투기 독자개발을 위한 기술확보가 가능케 됨으로써 자주국방 능력의 신장은 물론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군 전 장병은 이번 차기전투기 기종결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엄청난 의미와 기대효과를 재인식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하나된 시각과 통일된 의견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확고하게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조종사를 비롯한 전 장병은 F-15K의 우수한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견지하는 한편, 후속 군수지원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F-15K 항공기는 공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며, 수많은 실전 상황에서 그 위력과 신뢰성을 입증 받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전투기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에 인도되는 F-15K는, 초기 모델의 내부 시스템 중 60% 이상을 업그레이드한 최신모델로서 작전반경, 무기장착 능력, 야간공격 능력, 종심타격 및 생존 능력,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他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공군의 항공 전력 운용에도 많은 유연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F-15K는 장기간의 운영경험을 통하여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 보완된 항공기이기 때문에 무기체계 개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무위의 전력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후속 군수지원 문제 역시, 도입 후 30년 동안 안정적인 부품공급을 정부차원에서 보장토록 하였으므로 향후 수명기간 동안 운영에는 하등의 군수 지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종사, 정비사, 무장사 등 전 장병은, 앞으로 우리 공군의 최선에 주력기로 종횡무진 활약할 F-15K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공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도입하는 F-15K의 適期 전력화에 전력투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F-15K 도입은 사업집행이 승인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40대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군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 장병이 일치단결하여 적기 전력화 및 완벽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보일 때 국민들은 우리 공군을 더욱 신뢰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F-15K 전력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관계관들은 금번 차기전투기사업의 궁극적 성공 여부는 적기 전력화에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업무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F-15K는 분명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이지만, 유사시 전승의 결정적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전력화 노력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F-15K 도입을 공군 대약진의 계기로 삼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선진 정예공군 육성에 전 장병이 일치단결하여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각별히 당부합니다.

아울러, 이번 차기전투기 결정과정에서 보내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월드컵 등 국가대사의 안전 및 성공적 개최를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전방위 대비태세 유지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공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가일층 매진해 줄 것을 재강조하면서,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R.O.K. Air Force



- 1 제24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지역예선대회 개최
- 2 6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제15혼성비행단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천기광 참모차장
- 3 작전사령부 신청사 이주기념 불꽃이 음악회 개최
- 4 군기강 확립 새신 대책회의를 주재한 유병구 인사참모부장
- 5 교육사령부 제184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 거행



R.O.K.



6



7

6 제10전투비행단 월드컵 대비 한·미 연합 대테러 훈련 실시

7 제17전투비행단 민·관·군 합동 화생방훈련 실시

8 제16전투비행단 민항청사 점거 대테러 훈련 실시

9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실시

10 제8전투비행단 월드컵 대비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 실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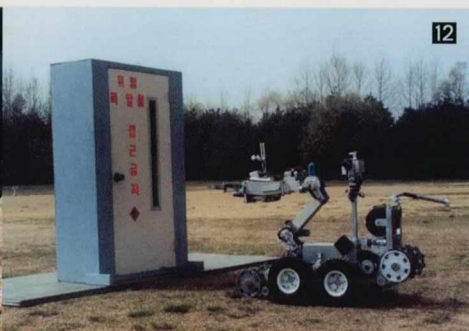
9



10



- 11 경찰청 대테러 요원들을 대상으로 폭발물 처리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한 교육사령부 폭발물 처리반
- 12 제17전투비행단 '한·미 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에서 폭발물 처리 로봇 시연
- 13 제30방공관제단 예하 8249부대 일본 항공자위대 방공실무자 견학
- 14 제3훈련비행단 부사관 합동결혼식 거행
- 15 정년퇴임을 맞아 고별비행을 마친 공군사관학교 박영기, 강철수, 원철희 교수(왼쪽부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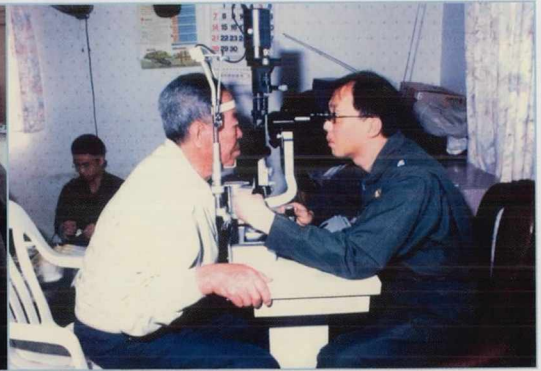
▲ 제17전투비행단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 월드컵 공인구 퍼버노바 전달



▲ 제16전투비행단 미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장애인 봉사활동 실시



▲ 제38전투비행전대 장애인 초청, 병영체험행사 실시



▲ 제17전투비행단 지역 순회진료 활동 실시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 동 호

오월, 오월은 생명이 무럭무럭 솟아오르는 청소년의 계절이다. 창문 너머 저 건너편 산등성이에도 새파란 싹들이 온 산을 덮어, 이 자연의 생동하는 생명력을 눈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기에 넘치는 달이다.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이 땅 위의 2차원적 평면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3차원적 생활이다. 오늘도 저 하늘 위로는 수천, 수만대의 항공기가 전 세계를 오가고 있고, 그 하늘 위, 저 높이 수십 만리 우주공간에 떠있는 수천대의 인공위성의 도움으로 전 세계가 단일 생활권으로 통화하며 살고 있다. 외딴 섬, 산간 벽지에서도 위성TV를 시청하며, 한반도 주위의 태풍진로, 그리고 요사이 문제가 되는 중국대륙으로부터의 황사현상 진로까지

생생한 정보를 보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소한 지역은 물론 도심의 복잡한 곳을 찾아가는데 편리한 교통지리정보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디서나 인공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얻고 있다. 이러한 항공우주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끝없는 사막이나 망망대해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 꿈은 그대의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이 발달한 항공우주기술의 바탕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0여년 전 동력비행에 성공한 라이트형제의 노력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백, 수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늘로 날아보려고 산에서 강에서 날개를

달고 추락했던 수많은 선각자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꿈들의 결실이 여기에 함께 한다. 그러나 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머나먼 미래에 대한 동화적인 꿈을 갖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먼 장래에 대한 꿈을 갖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하루 하루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현재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어릴 적에 많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저 파란 하늘을 신나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며 자랐다. 6.25 전쟁 직후인 당시에는 비행기라고는 가끔씩 충격음을 내고 휙 지나가는 썩썩이, 그리고 저 높은 하늘에 하얀 줄을 그리며 날아가는 조그마한 비행기뿐이었다. 그러던 중학교 어느 날, 공작시간에 모형항공기를 만들던 일은 나에게 정말로 비행기를 가까이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서울 한강다리 옆 백사장에서 열린 전국 학생모형항공기대회에 지도선생님을 따라 지방에서 상경하여 참가한 우리 팀은 좋은 성적은 올리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경기 중 내가 출전한 경기는 모형 글라이더를 연줄로 끌어 하늘에서 가장 오래 체공하는 팀이 우승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물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하여 모형항공기도 잘 만들어야 하지만, 바람이 좋은 방향에서 적당히 불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기도 했다. 시험이 끝난 후 성적이 좋지 않아 낙심한 우리들을 위하여 지도선생님은 입상자들을 태워주는 군수송기의 빈 자리에 우리가 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처음으로 타본 군수송기는 우리를 태우고 그 당시 군용비행장이던 여의도비행장을 이륙하여 수원근처를 선회 비행하고 돌아왔다. 그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지상을 떠나 하늘로 떠올랐던 감격은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

는데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하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점차 현실화되었고 외국 유학시에도 항공공학을, 그리고 귀국 후에도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도전을 기다리는 푸른 하늘

5월, 24회째 개최되는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에는 해마다 전국에서 수만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명실공히 국내최고의 모형항공기대회이다. 친구들과 힘을 합하여 밤새우며 모형항공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정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저 넓은 들판에서 오랜 노력과 수많은 실패 끝에 힘겹게 비행에 성공하는 즐거움도 젊은 청소년에게는 훌륭한 산교육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오늘날에는 말이다.

대학입학 면접시험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지망하게 된 동기를 물어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항공기나 우주선을 자신이 직접 설계해 만들어 보겠다는 커다란 포부에 차 있으나, 입학 후 일년, 이년이 지나면 도전적이던 큰 꿈과 포부는 바뀌어 현실에 안주하며 편안한 직장을 찾아다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어쩌면 아는 것이 너무나 적어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우리 세대와는 달리 인간의 달왕복이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고, 지구 주위로 우주왕복선이 오르내리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례로 지난 70년대 초, 그 누가 30년 후 오늘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상 위에 개인용 PC를 갖고 있으리라 꿈이나 생각하였을까? 우리 항공우주에도 언젠가 각자 새같이 날아다니는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시내 고층빌딩 사이를 날아다닐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저 푸른 하늘과 끝없는 우주공간은 꿈 많은 청소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2002
FIFA WORLD CUP
KOREA JAPAN



안전 월드컵,
공군이 책임지겠습니다

작전사령부 중령 방 장 규





60억 지구인의 대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눈앞에 다가 왔다. 작은 축구공 하나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성공적인 월드컵의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또한,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기와 자국의 승리를 바라는 각국의 바램으로 지구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올해를 국운융성의 해로 삼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월드컵의 안전하고 성공적 개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월드컵처럼 다수의 관중이 운집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는 특정 목적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월드컵을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공군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공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안전한 월드컵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의 전비태세 완비

공군은 월드컵 군사대비의 중점사항을 대회 기간 중 증강된 위기관리태세 구축과 적 군사도발 억제를 위한 대비태세 강화, 월드컵 경기장 대공방어 및 공중테러 대비태세 유지, 우발상황 및 재해재난 지원태세 확립,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월드컵 대회를 지원하게 된다.

대회 기간 중 증강된 위기관리태세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부대 단위별로 월드컵 군사대응반과 월드컵 상황실들을 별도로 운영하여 위기상황 돌입시 신속히 대처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적으로부터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계를 최대 활용하여 적의 군사도발 의도를 사전에 파악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조기경보 분야에서는 미군의 자산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그 능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월드컵 공중테러 방지를 위한 경기장 대공방어 강화 사항으로는 경기장 주변을 일정

공군은 월드컵 군사대비의 중점사항을 대회 기간 중 월드컵 경기장 대공방어 및 공중테러 대비태세 유지, 우발상황 및 재해재난 지원태세 확립으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월드컵 대회를 지원하게 된다.



시간 동안 비행금지토록 조치하고 경기시간 내에는 경기장 인근에 전투초계기를 운영하며, 경기장 주변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공포대의 대기상태도 증가하여 운용하고, 경기장에는 단거리 대공무기와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중첩된 공중테러 대응전력을 운용하게 된다.

특히 공중테러에 대한 대응은 제한된 시간 안에 완벽한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형별 대응책을 강구하며 가상 전술조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월드컵 경기장별로 실제 공중상황을 부여한 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전 요원들이 전술조치 사항들을 완전 행동화하는 단계까지를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하늘의 그라운드, 우리가 맡는다

대회기간 중의 우발상황 및 재해재난에 대비한 지원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한·미 합동으로 구성된 연합구조협조본부를 운영하고, 특히 군기지 사용 민간공항에 대한 대테러 출동조치 및 재난통제 지원부서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대회운영 및 안전활동과 관련된 모든 유관 기관과의 실시간 협조를 위해 각 기관과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특별히 금번 월드컵이 사상 최초로 한일 양국에서 동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긴밀한

항적정보 교환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공군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라운드엔 안전 월드컵을 위한 최강의 전력이 뛰고 있다.✈



생화학 테러가 발붙일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공군본부 화생방과

공군은 생화학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우편물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검색
강화, 생화학 테러 위험물반입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화생방 요원 및 통제자의 실제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생화학
무기 테러 대응절차>라는 책자를 국내
최초로 발간하여 주요 부대에 배포완료
하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
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안전'은 대규모
행사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
며, 탄저균 테러가 가져온 백색공포는 우리나
라도 더 이상 불특정 다수를 향한 생화학 테
러의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안전 월드컵을 위하여

생화학 테러에 사용되는 생화학 무기는 인
간, 동물 또는 식물을 살상할 목적으로 생물
학 작용제 및 화학 작용제를 사용하는데, 화
학 작용제는 유독물질을 합성하여 사용하고,
생물학 작용제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직접 사
용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생
성되는 산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생물학 작용제는 젖은 상태나 건조상태로
투발된다. 건조분말은 산포하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저장에도 유리한 반면 생산을 위해서
는 정밀한 기술수준을 필요로 한다. 생물학
작용제는 분사, 폭발물, 음식이나 식수오염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되며, 대부분의 투발은
에어로졸 형태로 살포장치를 부착한 운송수
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화학 테러가 가능한 예로서는, 생물학작



용제의 우편소포 배달 및 항공기/차량을 이용한 살포, 화학물질 생산/저장시설 폭파, 유독가스 운반차량 탈취 후 폭파,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 백화점 등)에서의 생화학 작용제 살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완벽한 생화학 테러 대비, 테러 NO!

이에 따라 생화학 테러 대비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월드컵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군에서는 이러한 생화학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우편물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검색 강화, 생화학 테러 위험물반입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화생방 요원 및 통제자의 실제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생화학 무기 테러 대응절차>라는 책자를 국내 최초로 발간하여 주요 부대에 배포완료하였다.

생화학 테러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사전에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공군은 생화학 테러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생화학 테러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사전에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공군은 생화학 테러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늘의 붉은 악마,

16강을 바란다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가 결정된 것이 대학 3학년 때였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는 공군 중위의 신분으로 대회 개막을 앞두고 있으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가 우리 공군이 지키는 푸른 하늘처럼 한치의 허술함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랍니다. 또 모든 국민의 염원인 한국의 16강 진출도 꼭 이루어져, 올 여름 도서와 산간 벽오지에서 비지땀을 흘릴 우리 30방공 관제단 장병들의 가슴속에 한 줄기 시원함을 선사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30방공관제단 중위 김태훈



73기상전대 상병 노경훈



짜! 짜! 짜! 짜! 짜! 대~한~민~국!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구호와 박수소리가 낯설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월드컵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국의 16강 진출, 그리고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마음속 깊이 염원할 것입니다. 우리 공군인도 이러한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군인의 힘을 모아 실어준다면 한국의 16강 진출이 그리 멀진 않겠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위한 초석은 바로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 안보태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방공포병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영공방위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16강 진출과 영공방위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공군장병 모두 파이팅!

방공포병사령부 중령 김시연



제17전투비행단 중위 김두용



2002년의 새해가 밝아올 때 누군가 내게 올해 소망을 물어 보았다. 그때 난 나도 모르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나라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월드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애가 타고 가슴이 아팠는지. 1승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분명 1승의 문턱을 넘어서서 16강에 진출할 것이라 확신을 가져본다. 하지만 우리 안방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다스려야 몇몇한 대회가 될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희망한다. 진정한 승리로 16강 진출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파이팅!

제41보급창 병장 원흥익



“제대 언제냐? 내년 2월이라구? 군대에서 월드컵보고, 정말 좋겠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002년 6월, 월드컵 시작 전에 제대를 하는 선임병들이 후임병들 놀리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무실원들이 TV앞에 모여 우리나라 월드컵팀이 쟁쟁한 축구강국들을 이겨내며 16강, 8강, 어쩌면 월드컵 우승까지 이루어내는 장면을 열렬히 응원할 모습을 생각해보십시오. 군대에서 월드컵 100배 즐기기로 제격이지 않겠습니까?

제19전투비행단 소령 권성범



88올림픽 이후 우리 민족의 역량을 세계에 다시 한번 드높일 절호의 기회 FIFA WORLD CUP 2002! 그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월드컵 축제의 하늘을 든든히 지켜내겠습니다. 축구는 열한명의 선수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기량이 나오듯, 우리 국민도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국민의 염원인 16강, 아니 그 이상의 꿈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창공의 붉은 악마’ 우리 공군 조종사들도 저 높은 하늘에서 빨간마후라를 휘날리며 월드컵 16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제1방공포병여단 상병 송재환



바야흐로 21세기.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02 한·일 월드컵 대회. 자랑스런 우리 한국팀의 16강 진출로 인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월드컵 16강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땀 흘리며 막바지 연습에 혼신을 다하고 있을 우리 대표선수들을 위해, KOREA FIGHTING!

제20전투비행단 소위 음성민



2002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군은 영공방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팀도 필드방어에 최선을 다하시길. 조국하늘은 우리 손에! 필승 공군! 16강도 우리 손에! 필승 코리아!

드디어 월드컵이 다가 왔네요. 푸른 잔디 위에 펼쳐질 열기와 함성,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입니다. 우리 공군장병들도 선수들의 투지와 관중들의 열기를 연료 삼아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빈틈없는 영공방위, 우리는 하늘의 골키퍼잖아요. 파이팅!

방공포병학교 병장 권익현



제3방공포병여단 일병 정종선



2002년 월드컵의 녹색 그라운드를 눈앞에 둔 지금, 선수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강의 염원을 위해 12번째 선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여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땀 흘릴 때, 우리는 진정한 승자이자 그라운드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때론 감독의 눈으로, 때론 심판의 눈으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85정밀표준정비창 대위 오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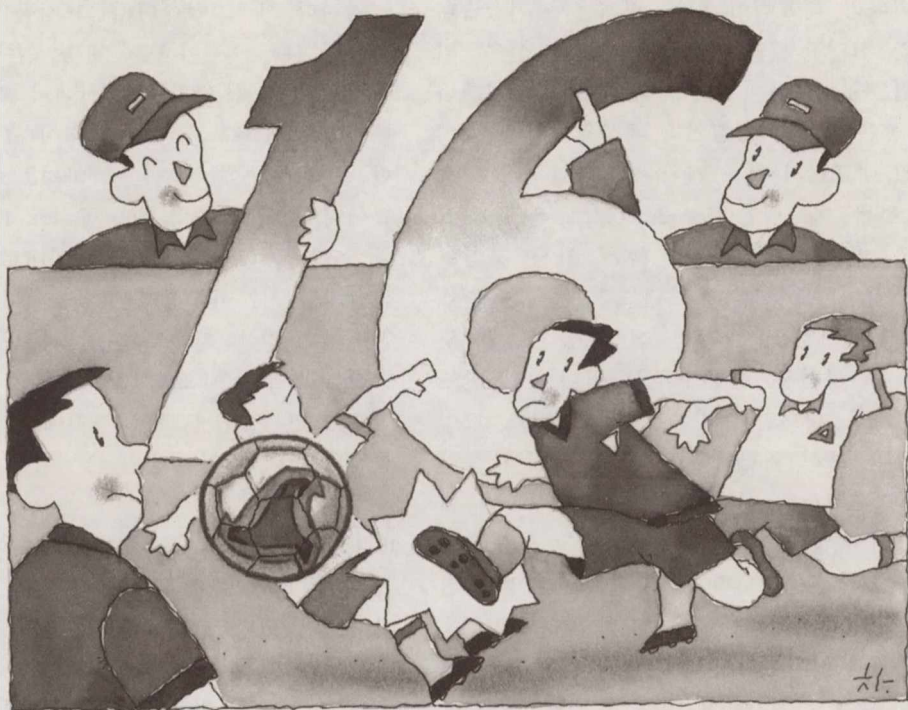


한국 축구!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16강 진출이 어렵다는 듯. 하지만 한국축구는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지금도 영광의 그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우리는 태극전사, 그들을 믿는다. 조국이 대한민국 공군을 믿는 것처럼. 태극전사 파이팅! 대한민국 16강 파이팅!

제82항공정비창 상사 남영암



우리는 그들과 정반대다. 푸른 체련복에 썰렁한 모래구장에서 전략, 전술 없이 죽어라 승리를 위해 뛴다. 그러나 그들은 붉은 유니폼에 응원단의 열기로 가득찬 잔디구장에서 치밀한 전략, 전술로 승리를 위해 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축구를 사랑한다는 점이다 이 공통점이 우리의 염원인 월드컵 1승, 그리고 16강 진출을 이루어 줄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16전투비행단 장병들과 함께 가는 월드컵 16강!

GO! 월드컵, GO! 16강

'2002 피파월드컵 한국/일본' 엠블럼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배경으로 TV화면에 뜨면서 감동과 흥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5월 31일, 전세계인의 이목이 대한민국 서울에 집중된 것이다. 월드컵 우승컵이 공개되고 공식구인 피버노바가 소개되면서 월드컵의 분위기는 무르익기 시작했다. 개막행사로 우리의 전통과 아름다움, 현재와 미래의 비전이 물씬 묻어나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벽안의 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드디어 개막전 시작! 전대회 우승국이자 세계 최강인 프랑스와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는 아프리카의 돌풍, 세네갈. 개막전 주심으로는 최초로 여성주심이 자리에 섰다. 막 주심의 휘슬이 울리고 선공 프랑스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을 돌려가며 2002년 월드컵의 뜨거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 과연 올해의 우승국은 어디일지, 한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될 것인지에 온국민, 온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병 김광현)

2002 월드컵의 진정한 시작, 對폴란드전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방민욱입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국 대 폴란드, 폴란드 대 한국전이 6월 4일 오늘, 부산 아시안드 경기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축구 해설가 김광현씨가 도와주시겠습니다. 김광현씨, 오늘 경기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는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죠. 폴란드 역시 전력은 막강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힘든 경기를 펼치겠습니까만,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과 그간 선수들의 노력, 한국 특유의 정신력과 투지가 더해진다면 좋은 경기를 펼칠거라 예상됩니다. 드디어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대표팀은 4-4-2 전술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비의 핵은 역시 홍명보 선수입니다. 중앙 미드필드진에는 송종국, 윤정환, 이영표, 설기현 선수죠. 최전방 투톱에는 황선홍, 최용수 선수입니다. 폴란드 선수들은 개개인의 발재간이 뛰어나죠. 그렇습니다. 가히 위협적이죠. 아, 중앙에서 폴란드, 스루패스 들어갑니다. 전반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한국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비진들 흔들립니다. 올리사데베, 홍명보 뒤로 돌아 들어갑니다. 아, 과연 뚫리나요? 올리사데베 아웃사이드 샷~. 다행히 골대 옆으로 살짝 비껴가네요. 골키퍼 김병지 볼 찿습니다. 윤정환 선수, 볼배급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들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됩니다. 최태욱 치고 들어 갑니다.

그러나 공 빼앗겼습니다. 폴란드 다시 탐색하고 있습니다. 올리사데베 쪽으로 한번에 찔러주세요. 올리사데베, 개인기와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죠. 아, 다시 위협합니다. 올리사데베, 김병지 선수와 일 대 일 찬스입니다. 슛! 골이네요. 전반 막바지에 한국팀 실점하네요. 아쉽습니다. 폴란드 팬들 열광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전반전 종료합니다.

휴식시간이 끝나고 한국의 선축으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선수들 움직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16강 염원이 녹아든 탓이겠죠. 윤정환, 이영표, 박지성 선수들도 투지와 팀워크로 치고 나갑니다. 황선홍 선수에게 스루패스 들어갑니다. 슛! 폴란드 키퍼 쳐냅니다. 한국의 코너킥입니다. 윤정환, 볼 휘어 들어갑니다. 홍명보 점프, 헤딩! 골입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 대표팀의 동점

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6강을 위한 첫승 가능합니다. 이 여세를 계속 이어가야겠죠. 폴란드 선수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국팀의 매서운 공격에 타격이 크겠죠. 치열한 공방전 속에 경기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팀 슈팅 7개, 폴란드 11개입니다. 다소 한국의 열세인 가운데 이대로 무승부로 끝날 것인가? 아! 경기 끝났습니다! 강호 폴란드와 16강에 청신호를 알리는 무승부였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도 선전해 주길 기원합니다.(이병 방민욱)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이긴다! 對미국전

2002년 6월 10일.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대구로 몰렸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피해갈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여야 했다. 오전부터 경기장 주변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붉은 악마들은 응원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한국은 지난 6월 4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렸던 폴란드와의 예선 첫 경기에서 사투 끝에 1 : 1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미국은 6월 5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1 : 3으로 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서로 상대팀을 제물로 삼아 16강 진출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느냐가 이번 경기에 달려 있었다.

경기시작 휘슬이 울렸다. 조금씩 계속 내리는 비로 인해 그라운드는 평소보다 미끄러웠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이어졌다. 수비에서는 백전노장끼리의 대결이 펼쳐졌다. 홍명보와 아구스, 양팀을 대표하는 노장 수비수인 두 선수는 모두 센츄리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에 가입되어 있다. 공격에서는 황선홍, 최용수와 미국의 떠오르는 신예 스타 도노반, 매티스, 그리고 유럽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튜어

트 등이 이따금씩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다. 한국의 유상철이 좋은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 냈다. 히딩크 감독에게 만능 플레이어라고 칭찬을 듣던 그. 하지만 비 때문에 미끄러워서 인지 볼은 높이 뜨고 말았다. 공격이 계속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득점과는 연결되지 못했다. 양팀은 점점 더 초초해 지기 시작하였다.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다. 시간은 어느덧 후반전 정규시간을 넘어섰다. 공을 들고 있던 한국의 골키퍼 김병지는 선수들 보고 멀리 나가라고 한 다음에 길게 골킥을 하였다. 길게 날아가던 공은 유상철의 머리에 맞고 미국의 골문을 향해 날아간다. 골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미국 골키퍼는 공을 쫓아갔지만 역부족이었다. 골네트가 철썩하는 순간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전국 각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유상철. 그는 국민의 오랜 염원을 저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주심의 휘슬이 울렸다. 1 : 0 한국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이병 정철균)

드디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 진출!

한국 국민의 염원인 월드컵 16강 진출! 1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경기가 시작된다. 붉은 악마들의 응원소리가 인천 문학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한국의 현재까지 성적은 1승 1무! 최소한 무승부를 기록해야만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대팀은 우승후보로까지 점쳐지는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이다.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피구, 콘세이션, 루노고매즈 등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포르투갈의 예선 2경기의 성적은 2승. 벌써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포르투갈은 주전들의 체력안배를 위해 15진을 투입시키는 여유를 부렸다. 붉은 악마들이 엄청난 함성으로 포르투갈선수들의 기선을 제압했다. 한국은 전반전을 수비에 치

중하며 후반을 도모하였다. 후반 30분까지 완벽한 수비로 포르투갈의 소나기 같은 공격을 막아냈지만 업사이드 트랩이 한번의 패스로 무너지며 골키퍼와 1 : 1 상황을 만들어 주고 말았다. 포르투갈의 공격수는 침착하게 슈트를 했고 첫골을 허용했다. 한국선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렇지만 붉은 악마들은 '괜찮아! 괜찮아!'를 연호하며 선수들을 격려했고 이에 부응한 한국선수들은 다시 힘을 얻었다.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안정환이 개인기로 수비수들을 따돌린 뒤 중앙으로 땅볼 센터링을 올렸고, 문전쇄도를 하던 황선홍의 오른발이 동점골을 터뜨리는데 성공하였다.

후반전. 한국은 전반전과는 달리 공격에 역점을 두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포르투갈 수비수들의 체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후반 20분 맹공격을 퍼붓던 한국은 설기현의 중거리 슈트로 역전에 성공한다. 포르투갈 선수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10분 뒤 윤정환의 절묘한 스루패스를 받은 차두리가 썩기골을 터트리며 거함 포르투갈을 무너뜨렸다.

종료 휘슬이 울림과 동시에 한국의 사상 첫 16강 진출이 확정되었다. 그래, 이제는 8강이다. 코리아팀 파이팅!(이병 김영한) ⬇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미래로

항공기 매니아들의 대축제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대위 윤 영 삼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는 1979년 국민들의 항공사상 양양과 공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이래, 지난 22년 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내 최대의 항공축제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모형항공기의 역사는 해방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관의 전국대회가 개최된 것은 1950년대 이후이다. 1950년대에는 교통부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였고, 1960년대에는 문교부에서 특수 체육종목의 하나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형항공기를 널리 보급하는데 힘썼다. 특히 대한학생항공연맹에서는 1953년 국내 최초로 모형항공기 경기규정을 만들었고, 문교부 주관 모형항공기 지도교원 강습, 각종대회 심판지원 등 국내 모형항공기 보급의 산과 역할을 했다. 1960년대에는 대한항공협회의 '모형비행기 연구소', 공군의 '중앙 모형기 연구소' 등의 연구시설과 모형항공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까지 생겨났으나, 이후 불조성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열기가 식어 70년대까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국산항공기 생산이라는 국가목표에 부응하여 항공사상을 양양하고 항공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 아래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가 1979년 10월에 개최되었다. 제1회 대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 예선을 거쳐 서울 공군사관학교에서 본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모형항공기대회를 실현하는 전기가 되었다.



고무동력, 글라이더, 유선조종, 무선조종 등에 걸쳐 3,800여명이 참가한 제1회 대회는 동호인은 물론 전국 유관 부서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행글라이딩시범과 고공낙하시범 등의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참관자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

1980년 제2회 대회와 '81년 제3회 대회에서는 경기·강원·충북 지역과 경남·전북 지역 예선대회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를 명실상부한 전국적 행사로 자리잡게 하였다. 제3회 대회 기간 중에는 각종 항공기 및 항공장비를 전시 견학시켜 항공사상을 양양케 하는 한편, 11,0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제1회 대회의 3배 규모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82년 제4회 대회는 지역 규모나 경기종목의 측면에서 지난 대회와 대동소이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각종 재질을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제작한 항공기의 출전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소수나마 자작기 참여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예선 주관부대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에 의



해 다채로

운 특별행사를 마련하여, 항공이벤트 측면을 강조하는 국내 최대의 항공축제로서의 모형항공기대회를 연출해낸 첫 대회로 평가받았다.

그 후 1991년 제13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예선대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원은 매년 1만에서 1만 5천여명에 이르게 됨으로써 공군의 최대 행사이자 국민대회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제13회 대회는 국내 최대의 항공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행사가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와 국교가 수립된 지 얼마 안되는 루마니아 Diamandescu 소장 등 8개국의 한국주재 무관들이 가족동반으로 참석하여 공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14회 대회부터 제16회 대회까지는 강원지역을 영동과 영서로 분리

하여 예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5년 제17회 대회 때는 경북지역과 충북지역을 북부와 남부로 각각 분리함으로써 전국 13개 지역에서 예선대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의 전국적인 세분화가 달성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1995년 제17회 대회는 국민과학진흥과 항공사상 양양을 위해 '세계로, 미래로, 공군과 함께'라는 대회 슬로건을 정함으로써 세계화와 미래화를 위한 공군의 도약상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96년 제18회 대회에는 1만 5천여명에 달하는 많은 선수가 참가하였고, A-37 기종으로 구성된 공군 곡예비행팀인 블랙이글이 묘기비행을 선보여 개막식 행사장의 하늘에 오색찬란한 향연을 베풀어 참관자들의 박수갈채를 자아내게 했다. 또한 제19회 대회부터는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에 참가기회가 없었던 제주도 지역 청소년들과 모형항공기 동호인들을 위해 제주도지역 예선대회를 신설하여 유채꽃 향기 속에 진행된 성공적인 행사로 기록되었다.

한편 제20회 대회에서는 충남지역을 동부와 서부로 분할 개최하여 전국 15개 지역에서 지역예선을 실시하였고 제21회 대회는 공군창군 50주년을 맞아 공군의 다양한 항공행사와 더불어 개최되었다. 또한 지난 해 치러진 제23회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인원이 참가하여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대회로 기록되었다.

이제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는 최고의 국민항공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금년으로 제24회 대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금년도 대회에서도 예년의 어느 대회보다 치밀한 행사준비와 다양한 볼거리들이 계획되어 신록의 계절 5월 하늘에 항공축제의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



추억으로 날리는 모형항공기, 1979~2002

기획특집/추억의 모형항공기대회



치맛바람에 비행기 날다(1회 대회 1979).

1979년 제1회 대회를 시작한 이래 국내 최대의 모형항공기 축제로 자리잡은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오랜 전통만큼이나 색이 바랜 흑백사진들. 하지만 그 속에도 푸른 하늘은 어김 없이 담겨 있다. 뿔테 안경에 검정교복, 검정치마를 휘날리는 여학생.

추억의 모형항공기대회로 날아가 보자.

편집실



10년이면 RC도 변한다(14회 대회 1992)



무게를 조금 줄일 것을. 비행기? 아니, 나 (1회 대회 1979)



그때는 애들도 장발에 꼭 끼는
반바지가 유행이었나?(5회 대회 1983)



앗! 검정교복. 우리 친구 아이개!
(2회 대회 1980)



선착순 집합. 이때 아니면 헬리콥터
언제 타보나?(7회 대회 1985)



얘야, 땅만 보고 달리면 어떻게.
지금쯤 30살?(3회 대회 1981)

“이번엔 실제비행이다!!”

사이버 파일럿 총집합, 창공의 최고수 뽑는다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오는 5월 19일 제24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제2회 공군참모총장배 컴퓨터 비행시뮬레이션대회를 앞두고 사이버 공간 최고의 조종사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가 점령한 국내 게임 풍토 속에서도 묵묵히 비행을 계속해 오던 사이버 파일럿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칠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훈련기인 T-41 등 2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개최되는 이번 비행시뮬레이션대회는 국내 2만여 비행시뮬레이션 게이머들의 열띤 사이버 항공축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입상자들에게는 가속도 내성훈련을 비롯한 항공적성훈련과 공군의 베테랑 조종사와 함께 실제 비행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참가신청 개시 1주일만에 참가정원이 채워진 이번 비행시뮬레이션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인터넷 홈페이지(www.afa.ac.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02' (T-41 경항공기 부문)와 인포그램의 '팔콘 4.0' (F-16 전투비행 부문)이 사용된다.

비행시뮬레이션게임이란?

일반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비행상황을 접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게임 프로그램으로, 주로 군사용이나 민간항공기용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일반인들이 비행의 다양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비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나 일부 비행시뮬레이션게임의 경우, 일선 조종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으며 게임의 흥미보다는 비행자체에 대한 사실성에 주안점을 두어 실제 군사용 시뮬레이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비행시뮬레이션게임은 일반 PC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터처럼 3차원의 모든 시야를 표현하지 못하고, 전방 모니터 안에 모든 비행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군사용 시뮬레이터는 실제와 같은

조종석에서 프로그램 조작하는 반면, PC용 시뮬레이션게임은 실제 항공기와 거의 유사하게 작동하는 PC용 조종간과 스톱, 러더만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타 랜딩

기어작동 등 그 외의 기기 조작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병용한다.

PC용 시뮬레이션게임을 사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가정에서도 각종 비행상황을 접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비행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여 공간을 초월한 상대와 전투 비행을 벌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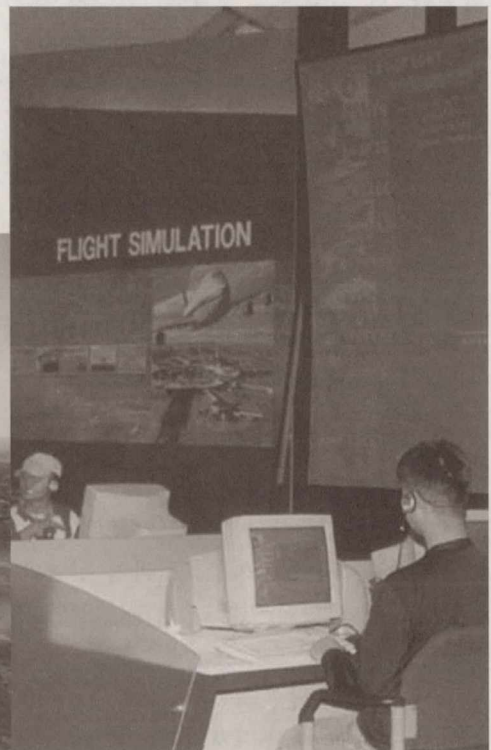
특히 군사용 시뮬레이터가 주로 조종사들의 기본비행절차 숙지를 위해 활용되는 반면, PC용 시뮬레이션게임은 1:1, 2:2 및 다양한 적기의 각각의 제원에 맞춰 조직적인 전술기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등 그 효율과 효용은 무궁



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민간항공기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Flight Simulator 2002'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군사용

으로는 F-22를 모델로 한 ADF나 F-15를 모델로 한 시뮬레이션을 비롯, 'Falcon 4.0'과 F/A-18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중 국내에서 가장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 공군의 대표 기종인 F-16을 조종하는 'Falcon 4.0'이라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 공군 필승!

제23회 대회 금상 중앙고등학교 3학년 박 병 일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제23회 모형항공기 대회에 참가했던 천안 중앙고등학교 3학년 박병일입니다. 제가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바로 저의 꿈을 공군사관학교에 걸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주말마다 서울에 가서 비행기 만드는 법과 날리는 요령 등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예선대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본선대회에서는 많은 참가자들로 인해 부담이 컸던지 1차 시기에서 비행기 왼쪽 날개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2차 시기까지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날개를 붙일 수 있었고, 저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형항공기대회를 통해 저는 새로운 친구도 사귄 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

도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연습할 곳이 따로 없자 경기장에서 연습하는 참가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참가자들 서로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경기하는 비행기와 연습하는 비행기가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연습장을 경기장 근처에 배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회참가자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선과 본선경기 폐회식 및 시상식 때 수상자 외의 참가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경기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경기결과에 승복하고 서로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었으면 합니다.

대회에서 보여주신 공군장교들의 친절함은 공군장교가 꿈인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영공을 지키고 계신 공군장병님들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공군 필승!

소중한 모형항공기대회의 경험

제23회 대회 은상 혜화여자중학교 3학년 하 미 경

난 올해로 3년째 모형항공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처음 중학교에 올라와 멋도 모르고 과학부에 든 것이 모형항공기와의 인연의 시작이었지만. 그런데 비행기 날리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 작은 고무동력기가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3년 전 처음으로 나갔던 부산·경남동부지역 예선대회. 처음 접한 센 바람에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많이 떨렸었다. 하지만 내 손에서 날아간 비행기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 드디어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날아갔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마치 큰일이라도 해낸 듯한 느낌.

이런 때가 모형항공기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때이다. 이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모형항공기에 빠져 많은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 아쉬움이 남는다.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것이다.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2학년 때 만든 비행기는 진짜 멋있었는데 중심만 좀 더 맞고 몇 번만 더 만들어 봤어

도... 어쨌든 나는 모형항공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물론 첫 번째는 모형항공기를 맘껏 날릴 수 있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모형항공기와 함께 했던 기억은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비행시뮬레이션대회가 선사한 9G

제1회 비행시뮬레이션대회 8강 소사고등학교 1학년 임종호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비행시뮬레이션대회 입상특전으로 받았던 항공생리훈련에 대한 짝막한 소감을 써볼까 합니다. 그때 받았던 항공생리훈련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로 가고 처음 택시를 잡아 보고, 어쨌든 힘들게 도착한 항공의료원에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어느 날 공군참모총장배 비행시뮬레이션대회와 입상특전으로 항공생리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조이스틱을 사고 Falcon4.0 시디를 사고, 그때부터 펠콘을 연습했지만 어렵더군요. 파트너 형을 잘 만나서 결국 올라가긴 했지만, 그 후 아침에 조깅도 하고 이것저것 운동도 하면서 항공생리훈련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당일 새벽, 떨어지는 유성을 11개나 보며 훈련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이리저리해서 최고로 어렵다는 9G를 최연소로 달성했습니다.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땅에는 하늘을 동경하고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날며 나라를 지키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 비행시뮬레이션대회 파이팅! ✈



가속도 내성훈련 장면

정밀공중공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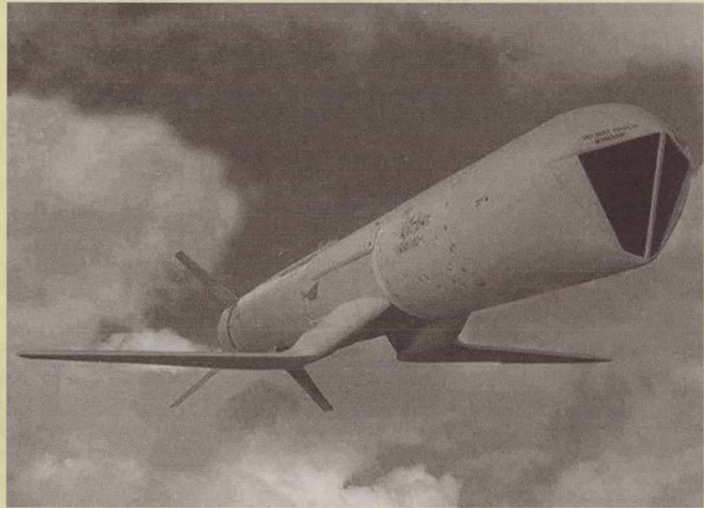
- 정밀공중공격 시스템 -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1. 왜 정밀공중공격이어야 하는가?
2. 정밀공중공격의 사례
3. 정밀공중공격 시스템
4. 정밀공중공격이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정밀공중공격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정밀무기 자체만이 아닌 기반이 되는 여러 전력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올바른 표적식별, 공중우세 확보 및 통제, 침투 및 타격전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력들은 상호연계되어 실시간 감지·처리·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의 정밀공중공격의 중요성 및 사례에 이어 정밀공중공격 시스템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스템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밀공중공격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정밀무기 자체만이 아닌 기반이 되는 여러 전력들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전력들은 미래전 양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공군력 건설의 방향이기도 하다. 시스템에는 올바른 표적식별, 공중우세 확보 및 통제, 침투 및 타격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들은 상호연계되어 실시간 감지·처리·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올바른 표적식별전력

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는 계획과 실행 모두를 어렵게 한다. 2차 대전 초기에 연합군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략 항공전 계획에 있어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적의 산업 및 기반구조 등, 표적 세부사항들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다. 최근의 GPS유도방식의 정밀무기를 다량으로 사용한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표적에 대한 정확한 위치식별 및 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표적식별전력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 JSTARS, 신호정보기 등을 들 수 있다.

인공위성은 쉽게 격추되지 않으면서도 많

은 지역을 관찰할 수가 있다. 만약 걸프전에서 인공위성이 없었거나 파괴되었더라면 군사기획자들은 이라크 방공시스템의 구조와 약점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파괴할 전역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걸프전에서 그 능력이 입증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군사위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인공위성 식별능력은 지상 10cm까지 식별 가능한 기술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보수집의 예로, 코드네임 '키홀(Keyhole)'이라는 스파이 위성 KH-11은 1984년 흑해의 니콜라예프 해군기지에서 소련 최초로 건조중이던 핵추진 항공모함을 800킬로미터 고공에서도 선명하게 촬영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KH-12, 오비미지, 퀵버드 등의 위성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웃한 일본도 인공위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H-2A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하였고 정찰위성도 쏘아 올릴 계획이다.

정찰기로 대표적인 것이 U-2이다. U-2는 방공미사일이 닿을 수 없는 7만피트 정도의 고고도에서 카메라와 전자센서를 탑재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탑재카메라는 745마일 넓이의 지역을 담당할 수 있고, 중앙 150마일은 입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U-2는 오래 전 소련이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확인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정찰기는 조종사가 오랜 시간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유인정찰기를 대신하여 무인정찰기인 중저고도용 RQ-1A Predator와 고고도용 RQ-4A Global Hawk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동표적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역할을 하는 JSTARS(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합동감시표적 공격 레이더체계) 또한 정밀공중공격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적진내부 200마일 이상의 탐색

능력을 지닌 지상표적 탐지레이더를 장착한 JSTARS는 요주의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차량들의 통행마저도 포착해 낸다.

신호정보(SIGINT)수집기도 표적에 대한 정보수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은 무선송신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것을 도청하는 것도 정보획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선파에서 마이크로웨이브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가 주된 정보수집영역이 된다. 이것을 도청하게 되면 적국의 방공레이더 유형에서부터 우방국의 내각 개편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적정보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 질 때 그 표적에 대한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공중우세 확보 및 통제 전력

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타격수단에 전달되어야 하며, 정밀공중공격을 위한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도록 공중우세를 확보해야 한다. 적의 대공망을 마비시키고 아군의 전력을 보호하며 실시간 통제 가능한 공중통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범위를 확장하여, 위성을 이용한다면 우주통제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으로 AWACS, C4I시스템, 대공제압전력 등을 들 수 있다.

AWACS(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정밀공중공격 전력들을 통제하고 적기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고고도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지상레이더의 탐지범위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탐지까지 가능하며, 타 체계와 연동하여 수집된 자료를 정밀공중공격 전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최신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67)는 전투기 탐지거리 540km, 600개 비행물체 동시처리능력을 보유

하고 있다.

C4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s), 컴퓨터(Computers), 정보(Intelligence)의 약자로 모든 전투수단과 정보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통합하여 전투력 발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대전에서 정밀성을 논할 때 중요시되는 것이 시간개념이다. 시간개념은 긴급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통제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기반이 C4I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밀공중공격을 위하여 적의 방공망을 제압할 전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자전을 수행하는 항공기와 대공제압기가 요구된다. 전자전수행 항공기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체계를 교란 및 마비시킴으로써 정밀공중공격전력을 보호하며, 대공제압기는 사전에 적의 SAM과 레이더기지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무인기를 대공제압기로 사용하거나 고성능 전투기에 대공제압용 미사일을 장착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침투 및 타격전력

침투 및 타격전력으로 첨단 전투기 및 유도탄을 들 수 있다. 정밀공중공격에 있어서 첨단 전투기는 침투 및 정밀타격수단으로 가장 필수적인 전력으로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이다. 전쟁시 저비용으로 많은 정밀항공무장을 표적지역까지 은밀히 침투하여 투하하는 임무는 바로 항공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미사일에 의한 정밀공격도 가능하지만, 비용적 측면이나, 표적파괴능력에서 비교가 안된다. 특히 제한된 취약시간대를 가지며 이동이 가능한 표적인 TCT(Time Critical Target : 실시간 이동 표적)에 대한 효과측면에서 미사일은 더욱 제한적이다. 앞으로의 표적은 더욱 더 TCT가 증가할 것이며, 지하

깊숙이 엄폐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투기 혹은 폭격기에 의한 정밀공중공격이 더욱 필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항공기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앞으로의 항공기는 스텔스화와 전천후 정밀폭격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고 있다.

항공기의 발달과 함께 항공탄약도 그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 항공탄약개발의 초점은 저비용으로 보다 정확한 무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정밀항공탄약은 센서 및 신호처리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지능화될 추세이다. 일례로 지역적 표적에 대한 확산탄도 지능화 자탄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영상정보를 구현하는 탑재센서를 이용하여 표적에 접근하는 도중에 탄도를 수정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정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탄약의 유도방식에 있어서 최근에는 GPS방식이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서로 DATA Link화하여 실시간으로 표적을 식별·분석하며, 선별된 정보는 타격전력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정밀공격의 중요한 요소인 시간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정밀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다음 호에서는 정밀공중공격이 군사력 건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④



다기능 수륙양용기 BE-200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BE-200 다기능 수륙양용기는 러시아의 Beriev 설계국에서 설계하였고, 러시아 IRKUTSK 항공 제작협회가 개발하였다. 러시아는 수륙양용기의 원천기술 보유국가로, BE-200은 이미 프로펠러 엔진단계를 넘어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항공기이다.

120여회의 시험비행 후 2002년 2월 러시아 인증을 취득하였다. 큰 후퇴각을 가진 날개 및 T자형 미익부, 그리고 다양한 횡단 수직 안정판을 포함하는 높은 중형비의 동체를 갖춘 단엽기로서 터보팬 엔진 A-436TN 두 개를 장착하고 있다.

기체는 가장 진보적인 유체역학 및 공기역학을 적용하여 항공기 신뢰도가 높으며, 항전 장비는 미국 Allied Signal사와 기술합작으로 첨단 전자공학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어떤 종

류의 수상권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며 약간의 변형으로 탐색/구조, 응급환자 수송 및 처치, 소방 및 재난통제, 어군탐지 등의 기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200해리 경제수역을 순시하고 환경관련 상황통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이착륙은 활주로 1,800m 이상에서 가능하고 호수 및 해양에서의 운항도 가능하다. 각 용도별 특징이 있으나, 소방 및 재난용은 산불진화, 소방요원이나 소방도구 투입, 화재지역 위치측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화물칸 아래에 위치한 8개의 물탱크실에 총 12톤(HH-47 약 2.3톤)의 물을 담을 수 있다. 글라이딩시 물을 담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초에 불과하다.

BE-200 수륙양용기는 현재 러시아 정부에서 산불진화용으로 7대를 구매 계약하였다. BE-200은 고성능의 터보팬엔진과 전자장비를 장착하여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사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성능개량 및 탑재장비를 가감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원 및 성능

- 기장/기고/기폭 : 32.05m/8.9m/32.78m
- 엔진 및 추력 : A-436TN 엔진 2x7,500kg
- 최대이륙중량 : 37,200kg
- 수상비행성능 : 파고 1.5m, 수심 2m 이상
- 수상적합도(seaworthiness) : 3등급(안전)

국내 항공우주의학의 메카 공군 항공의료원

항공의료원 중령 방 원 서



공군 항공의료원(이하 항의원)의 하루는 여부사관의 청아한 목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친절위원회 아침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실천사항은 ‘경어와 바른 호칭을 사용합시다’입니다... 이상은 친절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항의원의 하루는 친절로 시작하고 친절로 끝이 난다. 지난 1999년 4월 1일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항의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조종사, 공중근무자, 공군장병 및 타군의 건강까지 돌보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1세기 항공우주의학의 산실

오늘날 항공우주분야의 눈부신 발달로 항공기의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이를 운용하고 조종하는 인간의 신체적, 생리적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공우주의학의 발전 여부에 따라 항공전력의 극대화와 항공우주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우주의학(Aerospace Medicine)이란 항공우주의학 관련분야의 과학적 전문지식과

훈련, 그리고 연구활동 등 학문적 접근을 통해 고공과 우주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신의 안녕상태, 건강, 안전 및 능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항공우주의학은 20세기 초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함께 태동되어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크게 발전했으며, 미국의 경우 1953년에 항공의학전문의 제도가 채택되어 수많은 전문의가 배출되는 등, 항공선진국일수록 활성화되어 있다.

국내에 항공우주의학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48년 육군 항공의무처가 발족되면서부터이다. 이어 1949년 10월 1일 공군독립과 함께 공군병원이 창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공군병원은 1960년대 말 육·해·공 3군의 상호지원과 유사기능의 통합원칙에 의해 항공우주의학 전반에 걸친 진료자문과 적성평가, 항공생리교육훈련 및 연구를 주임무로 하게 되었으며, 그 명칭도 1962년 항공의료원, 1988년 항공의학적성훈련원을 거쳐 지난 1999년 종합병원으로의 승격과 함께 항공의료원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육·해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조종사까지

항의원은 국내 항공우주의학의 요람이자 총본산으로 공군은 물론 육·해군의 조종사를 위한 전문진료와 교육훈련, 그리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완벽한 항공의무지원’을 목표로 진료부, 항공생리교육훈련부, 항공의학연구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료부는 공군내 최고의 종합병원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면모를 갖추고 공중근무자에 대한 비행적성관리 및 항공의학적 진료, 그리고 충북지역 공군장병의 1, 2차 진료 및 타지역 장병의 2차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친절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 향상시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난해에는 군의료 사상 최초로 생명공학을 이용한 '자기유래 연골세포 이식술'을 성공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매년 고아원, 양로원 등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민·군 유대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항공생리교육훈련부는 육·해·공군 조종사 및 각종 공중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첨단훈련장비를 이용해 고공환경(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저산소증, 가속도, 비행착각, 야간시각, 비상탈출 등에 대한 특수이론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조종사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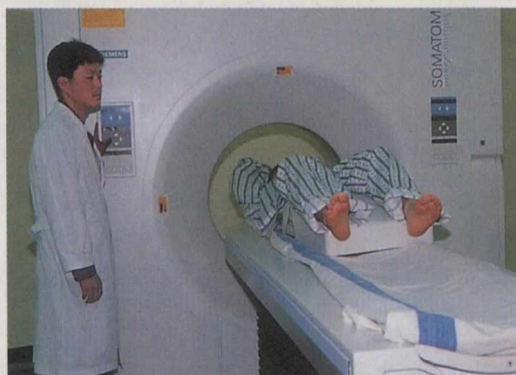
훈련의 목적은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물리적, 생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훈련을 통해 극복 및 예방책을 제시하여 공중기동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항공생리교육훈련을 받는 인원은 조종사(육·해·공·민간인)를 비롯해 항공의학장교, 항공간호장교, 승무원 등 매년 약 2,2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이곳은 연예인들에게도 공포(?)

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임창정, 김종국, 옥주현, 김미화, 이세창 등 수십여 명의 연예인들이 이곳에서 항공생리훈련을 체험하였다. 이들은 훈련체험을 마친 후,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 조종사들이 존경스럽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하였다.

항공의학연구부는 항공기를 운용하는데 따른 인체 유해요소는 물론 항공우주환경에서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고 조종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항공우주의학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명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 항공의학연구부는 1952년부터 '항공의학'지를 매년 발간해 왔으며, 한국 공군사관학교 여생도의 Relaxed G-tolerance에 관한 연구, 공군조종사의 전정기능연구 등 총 700여 편에 달하는 항공우주의학 관련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국내 항공우주의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행군의관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숭고한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새롭고 중요한 항공의학분야의 개척자로서 나의 소임을 다한다... 나는 인류가 나는 하늘을 두고 엄숙하게 이 모든 것을 맹세한다.” 이것이 바로 항공우주의학의 미래를 밝히는 항의원의 정신이다. ⚡



이발소 그림, 기취의 향수와 위안

대전매일 문화부 기자 권도연



60년대 동네 이발소, 삐걱대던 의자에 누워 얼굴을 덮은 수건 위로 뜨듯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면 어느덧 고단한 일과에 지친 육신도 조금은 위로 받는 것 같았다. 그러면 고생끝, 낙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뜬금 없는 생각에 마음이 누그러지곤 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거울 위를 올려다보면 거기엔 액자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멀리 큰산 자락 앞으로 물레방아 도는 내가 있고, 물가엔 평화로운 한 무리의 오리도 떠 있다. 그리고 그림 한 옆엔 홀립체의 글씨가 세로로 내려온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행복은 오리니...’ 푸슈킨이란 이름이 적혀 있으니 그 사람이 쓴 것 같긴 한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몰라도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았다.

우리나라 50~80년대 추억의 이발소 정경엔 이런 그림이 남아 있다. 또 다른 이발소엔 어미돼지가 여러 마리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림과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글이 박힌 그림이 대신 걸려 있기도 했다. 강하고 밝은 색으로 그려진 원색적 화면과 어디선가 본 듯한 이미지, 바로 ‘이발소 그림’이다.

예술성이 없는 그림이나 대량판매를 목적으로 많이 그려 싸게 파는 그림을 일컫는 ‘이발소 그림’이란 명칭은 이런 그림을 주로 이발소 장식용으로 걸어둔 데서 유래했다. 하지만 꼭 이발소만이 아니더라도 당시 신혼부

부의 단칸방을 비롯, 전국 곳곳에 보통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거의 다 걸려 있었다.

어떻든 ‘이발소 그림’은 고결함의 결어를 나타내는 듯이 보이는 그림과 감상적인 중산층의 동경심을 만족시키는 듯한 그림을 비판적인 의미에서 사용했던 개념이다. 대개 밀레의 ‘만종’ 스타일의 모사화를 비롯, 산·바다·호수·초가 등의 구성 요소를 갖춘 풍경화나 명시의 구절과 그림을 함께 그려 넣은 시화, 이국적 배경에 실제 인물의 모습을 그려 넣는 인물화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발소 그림이 그려지기 시



작한 것은 1910년대 서양화기법이 도입되면서부터다. 하지만 80년대 초쯤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발소 그림은 사라졌다. 이때부터는 상업적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상화(商畵)’라는 용어가 함께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들 그림은 유화물감이 아닌 페인트를 쓰고 나일론 천 위에 그렸기 때문에 ‘뽕끼 그림’, ‘나일론 그림’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이발소의 개업이나 가정의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런 그림은 밀려드는 서구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농경문화에 대한 그리움과 착종시켜 기형적 이상향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엔 없는 만년설을 이고 있는 화산형산과 호숫가 집 한 채는 이국풍경이다. 반면 배산임수의 지세, 물레방아와 앞마당에 널어놓은 붉은 고추 등은 전형적인 우리 시골마을의 풍경이다.

이 이질적인 두 요소들은 서양화 기법으로 그려졌으나 기본원칙인 원근법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발소 그림들은 우리의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했다. 외국인들은 그 안에서 독특한 한국성을 찾아내기도 했다.

지극히 한국적인 토착장르로 이해되는 이런 ‘이발소 그림’을 90년대 예술론에서는 소



위 ‘키치(Kitsch)’라 이름한다. 키치는 ‘진품이 아님’이란 의미의 독일어 원뜻에서도 알 수 있듯 모더니즘이 생산해낸 고급예술하고는 거리가 먼 조악한 그 무엇이다. 대표적인 외국의 키치작가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팝 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을 들 수 있고, 최근의 작가로는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미술가 제프 쿤스를 거론할 수 있다.

대다수의 예술품이나 문화산물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굳이 숨기고 있는 것과는 달리 키치는 기술적 생산과 재생산이 가능한 기반 위에서 대량소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윤을 남긴다는 점에서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다. 이런 작품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궁핍과 떠돌, 그리고 남루 등이 생활의 세목이었을 무렵, 사람들은 하여간 그 무엇에서든 위안 한 토막을 얻고 싶어했다.

사람들은 이발소 그림이 예술품에 대한 ‘비겁한’ 시늉이라는 점을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그림 자체의 심미적 높이가 여하하든,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만만찮은 정서적 반응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싼 제 몸값에 비해 그 이상의 몫을 한 셈이었다.

이러한 키치의 대중적 취향으로부터 고급미술이 한 수 배울 수도 있다. 고급문화가 대중의 오늘과 현재의 모습을 담아내지 않을 때, 대중들은 끊임없는 키치화를 통해 새로운 위안물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그런 유형의 그림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일단의 생활의 진실을 투사해보기도 하고 어떤 위안을 얻기도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발소 그림의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라. ‘이발소 그림’에 대한 무조건적 폄하 대신, 문화적 해석코드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대중의 바람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낸 그림이기 때문이다. ㉠



바그너, 발퀴레의 비행

자유기고가 **홍 석 기**

신화는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반영한다. 우주선이 태양계 밖을 벗어나려는 첨단과학의 시대에도 태양의 자손이니, 하늘의 아들이니, 혹은 알에서 태어났다는니 하는 등의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공공연히 전승되고 이야기되는 것은 신화가 그 민족이 고대로부터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신화는 곧잘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서구문명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상대적으로 현대 북유럽 국가들의 주류인 게르만족은 로마로 남진해 그리스, 로마문명에 흡수되기까지는 야만부족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야만족이 힘으로 문화선진국을 정복했지만 곧 역으로 그 문화에 흡수됐다는 것은 게르만의 혈족들에겐 오랫동안 열등감으로 작용했을 터이다. 따라서 이후 게르만족은 이런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게르만족 정체성에 대한 바그너의 대답

그럼 게르만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19세기 게르만의 후예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 1813~1883)'는 이 물음에 사상 최장의 가극 '니벨룽겐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로 대답한다. 바그너는 그의 생애 동안 주로 게르만의 전래 설화와 무용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남겨 독일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예술가로 추앙받는 작곡가이다. '로엔그린', '탄호이저',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 유럽에서 전래돼 온 무용담들을 소재로 만들어진 그의 가극들은 그 내용만큼이나 무대장치와 소품들의 스케일이 거대하고 화려하기로 유명하다.

'니벨룽겐의 반지'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바그너 작품 중에서도 최고로 꼽힌다. 이 곡

은 1876년 바이에른의 소도시 바이로이트(Bayreuth)에 건립된 바그너 전용극장 개관 기념으로 초연됐는데, 4일간에 걸쳐 연주됐다. 전곡을 쉬지 않고 연주한다면 15시간 이상이 걸리는 엄청난 대작이다.



전무후무한 이 스펙터클 가극의 모티브는 중세 게르만의 영웅 지그프리트에 대한 독일 기사문학. 4세기경, 게르만 브루군트 왕국의 왕녀 크림힐트는 올케인 브룬힐트의 노여움으로 사랑하는 남편 지그프리트가 암살당하게 되자, 그 복수를 위해 훈족의 아틸라왕과 결혼해 자신의 일족을 멸망시키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바그너는 여기에 고대 북구신화의 여러 신들의 전설을 첨가해 장편 가극으로 작곡해낸다. 게르만의 정체성은 남부 지중해의 기름진 음식에 절은 나약한 귀족의 후예가 아니라, 바로 발트해에서 라인강에 이르는 척박한 북유럽을 무대로 군림했던 용맹하고 저돌적인 전사들의 후예라는 것을 바그너는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대서사극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비행, 승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동경이 가극 중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음악은 '발퀴레' 3막의 서곡인 '발퀴레의 비행(the ride of Valkyrie)' 일 것이다. 발퀴레는 북구신화 속에서 전장의 하늘을 날아다니다 용맹스러운 전사들을 용사의 전당 '발할라'로 인도한다는 여신들로, 최고의 신 '보탄'의 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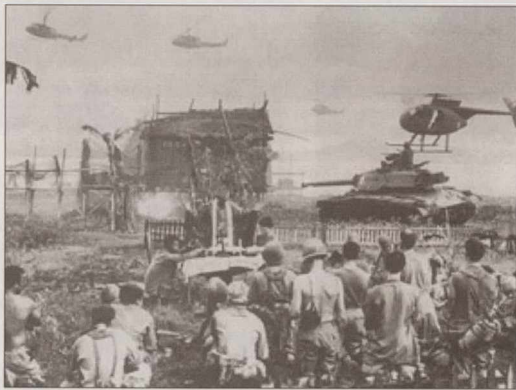
바그너는 이 서곡에서 기묘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주는 현악기들의 들쭉날쭉하는 단조 화음 위로 금관악기들의 위풍당당한 주제를 반복하고, 이어 고음역대의 소프라노 화음을 첨부해 전체적으로 호전적이고 장쾌한 전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현악기들은 전쟁터에서 헹헹거리는 말들의 울음소리를, 금관악기들은 여신들의 출장(出場)을 상징하는 것이다.

굳이 이러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 서곡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전적이면서도 위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영화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후부터 우리 귀에 더욱 익숙해졌다.

1979년 미국의 프란시스 F. 코폴라 감독이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 중에서 헬리콥터 강습장면에 사용된 음악이 바로 '발퀴레의 비행'이다.

극중에서 킬고어 대령(로버트 듀발 扮)은 옆에서 터지는 포탄에도 꿈쩍 않고 오히려 화약냄새가 향기롭다고 중얼대는 전쟁광. 주인공 윌러드(마틴 쉰 扮) 일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 헬리콥터 편대로 베트콩 마을을 무차별 폭격하는 장면에서 킬고어 대령은 헬기에 설치된 스피커로 바그너의 '발퀴레'를 듣다. 하늘에 떠 있는 우월한 존재로서, 그 순간만큼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절대자의 입장에서 통쾌해 하는 그의 호전성과 전쟁의 아수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설정이었던 것이다.



이 영화에서의 강렬한 인상 때문인지 이 곡은 이후 공격과 호전성을 대표하는 기호로, 혹은 독일인들을 상징하는 기호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한계, 신화를 통한 대리충족

바그너가 확인해준 게르만의 강인하고 활달한 전사로서의 민족성은, 20세기 초 독일인의 배타적인 일체감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게르만·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전체주의와 국수주의의 광기에 빠져들었던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애호하고 장려했던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바그너는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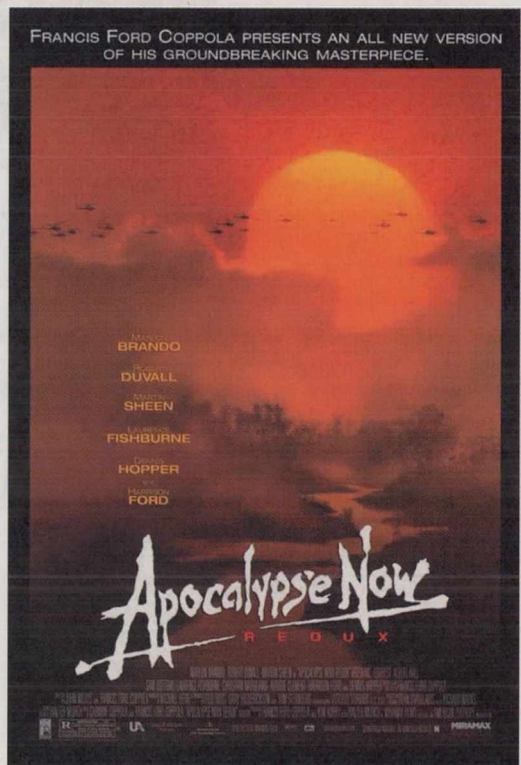
습하고 척박한 북유럽의 자연환경에서 약탈과 전쟁만이 생존의 수단이었던 게르만의 전사들. 열악한 환경이 큰 제약으로 다가왔을 때 그들은 굴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의지를 굳건히 하고 강한 기개를 펼쳤다.

절대승리를 얻고자 했던 전사들에게 하늘을 난다는 것은 우월감의 상징이자, 승리를 향한 기원이었다. '발퀴레'는 이러한 용사들의 원초적인 욕망에서 탄생한 음악이라고 볼

수 있다.

등에 커다란 날개를 달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 '니케(Nike)' 처럼 신들이 비행능력을 지닌 우월하고 전능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승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동경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욕망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민족의 신화를 예술로 승화시킨 바그너의 장편가곡이 근대역사 속에서 독일민족의 배타성과 국수주의를 자극했다는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웅장한 스케일의 음악을 통해 신화 속에 녹아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AIR@ARTS 코너는 대한항공 webzine Sky News에 실린 글을 다시 실고 있습니다.

KOREAN AIR webzine Sky News

분덜리히가 부르는 '시인의 사랑'

서울시 교향악단 양 창 섭



나는 내 목소리가 참 싫다. 음역이 넓지도 않고, 음색도 특이하다. 목소리에는 지문처럼 자신만의 딱지가 붙어 있다. 왜 TV에서는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음성변조까지 하는가. 어쩌면 목소리는 얼굴보다도 더 존재와 동일시되진 않는지.

젊은 나이에 죽은 성악가 프리츠 분덜리히의 얼굴을 보고서 그의 목소리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백정이나 산도적썰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실제로 사냥을 좋아했다고 한다)은 음반 마케팅에 최대의 장애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요절한 성악가의 대표적인 음반인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절창이다. 여기서 '절'은 '다시없을 절(絶)' 이렇다.

후베르트 기젠의 나긋한 반주를 따라 흘러나오는 첫 노래를 들었을 때의 그 감흥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분덜리히를 듣고 나서 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그의 온몸에서 퍼져 나온다. 하지만 분위기는 반전되어 슬픔의 정조로 바뀌고, 분덜리히는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담담하게, 그러나 언제나 사랑의 열병에 기빠하고 슬퍼하는 청년의 목소리로 애절하게 노래한다. 짧은 지속음에서도 미묘하게 떨리는 그의 목소리, 계산되지 않은 듯한 순수 감정의 격렬한 발산은 우리시대의 탁월한 성악가 이안 보스트리지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만의 매력이다. 아무도 분덜리히처럼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를

슬프고도 격렬하게, 또한 아무 꾸밈없이 부르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덜리히는 사랑의 화신이다. 베토벤의 '아델라이데', '멀리 있는 연인에게', 그리고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 나오는 '이 그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등등. 물론, 이 노래들은 리릭 테너들의 당연한 레퍼토이이긴 하지만, 분덜리히처럼 잘, 그리고 자주 부른 사람도 없었다. 심지어 푸치니의 오페라 <보엠>의 '그대의 찬손'마저도 파바로티의 오리지널 버전보다 분덜리히의 독일어 버전이 더 낫게 들린다. 목청 좋은 파바로티의 내지르는 시원함도 없지만, 미미를 앞에 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가식이 그에게는 없다. 알프레도나 로돌포나 타미노나, 아니면 하이네의 '시인'이나 분덜리히에게는 모두 하나였다. 사랑에 너무나 수줍어하고 설레고 또 슬퍼하는 순수한 청년.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보스트리지는 독일 레퍼토리에 있어서 분덜리히의 행보를 밟고 있다. 하지만,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씩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영국인의 어색한 독일어 발음 때문이 아니라 슈베르트의 '마왕'을 부를 때 최고에 달하는, 너무나 잘 계산된 연출력 때문이다. 분덜리히의 <시인의 사랑>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매력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봄노래다. ⬇

세계적인 장수촌, 훈자왕국

글·사진 사진작가 김 석 종

세계적인 장수촌이라고 알려져 있는 혼자 왕국에 도착한 날은 흐리고 캄캄한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이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따라 파미르고원 깊숙한 산 중턱에 자리한 이 마을에 들어서자 7월인데도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저리게 만들고 있었다.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머물 숙소에서 지프차를 보내 왔다. 워낙 가파른 산길이라 4륜 구동의 지프차가 아니면 산꼭대기에 있는 숙소인 Hunza Inn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프차의 운전수는 시동을 걸고 콧노래를 부르며 특유의 미소를 띄워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는다. 가파른 산길을 10여분 오르자 새로 지은 숙소가 나타났다. 이미 어둠이 그긴 자락을 내리며 숙소 건너편 혼자마을의 불빛들이 하나 둘씩 명멸하고 있었다. 혼자마을을 온통 감싸고 있는 거봉들이 산맥을 형성하며 어둠의 무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혼자왕국은 해발 평균 2천5백 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이 장수촌이라고 소개한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108세의 노인이 살고 있다고 했으나, 작년에 10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이후 103세의 노인이 최고령자라는 얘기를 Hunza Inn 주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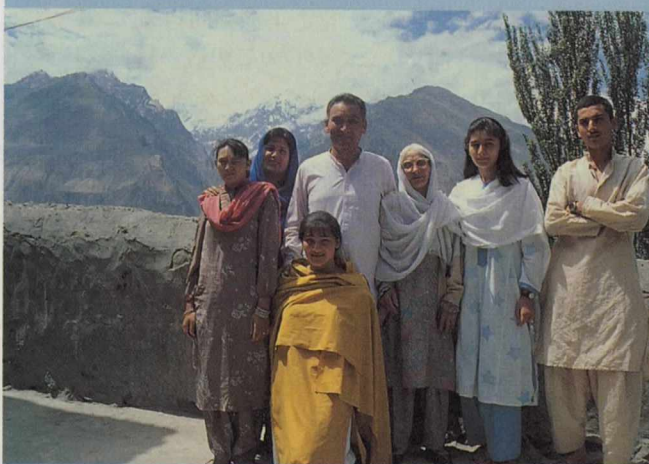
석회질이 녹은 물로 샤워를 하고, 혼자왕국의 민속춤을 구경했다. 험령한 옷에 빵모자를 쓴 두 사람이 반달모양의 칼을 들고 칼춤을 추는 모습은 평화로운 이 마을의 이미지와는 영 판 판으로, 격렬하고 자못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춤 구경이 끝나고 잠을 청했으나 고지대라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질 않는다. 간신히 눈을 붙이고 몇 시간을 뒤척인 끝에 잠을 깨 보니 새벽 6시였다. 카메라를 올려 메고 숙소를 나섰다.

우선 혼자왕국에서 다르게 느낀 것은 유난히 공기가 맑다는 것이다. 공기가 신선하다 못해 달았다. 조용한 정적 가운데 저녁에는

볼 수 없었던 산맥의 위용이 먼저 눈 앞을 꽉 채운다. 해발 7,788미터의 라카푸시, 울탄봉, 파수콘봉이 바로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만년설로 뒤덮인 이들 산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서히 어둠의 장막을 벗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태고의 신비란 바로 이런 것일 거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정신 없이 셔터를 눌렀다. 숙소로 돌아와 빵과 염소젖으로 만든 우유를 마시고 마을구경에 나섰다. 마을의 집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을에는 나무가 많았고 조그만 언덕을 넘자 계단식 논들과 밭이 계곡 사이사이를 메우며 아담하

문명의 혜택 없이 살고는 있지만 자연의 넉넉한 품에서 자연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혼자인들은 어쩌면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도시인들보다 더 행복한 게 아닌가.



게 놓여 있었다.
회색빛 돌담 사
이사이로 아이들
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 곳서 사는
사람들은 비록
이 곳이 파키스
탄령이라 할지라
도 자신들은 훈
자사람이라고 자



부하며 산다고 한다. 옛날 파키스탄에 합병되
기 전 이 곳은 독립된 왕국이었으며 아직까
지 자신들은 왕가의 일족이라고 자처하는 사
람들이 많다고 한다. 훈자왕국에는 '발티' 과
'알티' 이라는 두 개의 고성이 남아있다. 이
중 알티성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알
티성은 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요새와 같은
곳으로 절벽 위에 자그마한 크기로 지어져
있었다. 알티성에 올라가니 절벽 밑으로 회색
빛 훈자강이 굽이굽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강
 건너 실크로드의 한 지류였던 카라코람 하이
웨이가 끝 간데 없이 풀어져 놓여 있었다. 구
경을 마치고 마을입구에 도착하자 집집마다
살구를 지붕 위에 말리고 있었다.

훈자왕국에는 유난히 살구나무들이 많았다.
적황색의 작은 살구는 감칠맛이 났다. 마을
앞에 좌판을 벌려 놓은 꼬마들로부터 파키스
탄 모자를 하나 샀다. 파키스탄 모자는 특이
하다. 다 퍼면 자루포대 모양이지만 이것을
바깥에서부터 말아 올려 자신의 머리 사이즈
에 맞추어 쓰게 되어 있다. 모양이 소박하고
색깔이 마음에 들어 겨울 촬영 때 써야겠다
는 생각에 30루피(한국 돈으로 8백원 정도)를
주고 샀다. 마을은 조용했고, 학교 운동장에선
아이들이 배구경기를 하고 있었다. 워낙 관광
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낯선 사람인 우리일행
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다. 다만 채소밭 사이
를 걸어가는 순진무구한 어린 소녀들이 생기

찬 눈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나에게
미소를 띄워 보일
뿐이었다.

누런 보리 밭
너머 타작을 하고
있는 한 노인과
그 일가들. 동네
구석구석에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네

아낙네들의 모습만 보일 뿐, 장수촌이란 말이
실감이 안 갈 정도로 노인들의 모습은 눈에
드물게 들어왔다. 정말 한가로운 동네라는 느
낌이 들었다.

사진촬영을 마치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웬
집에서 한 소년이 나타나더니 자기 집에서
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서툰 영어로 말을 걸
어왔다. 집안에 들어서니 온 식구들이 영접을
하는 게 놀랍고 훈훈한 인정이 느껴졌다. 집
안에서 만든 홍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집안은 훈자왕국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집안의 족보를 적은 책자까
지 선물로 받게 되었다. 크게 보답할 게 없어
일가족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을 보내주기로
하고...

1주일을 이 곳서 있으면서 느낀 게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곳서는 크게 신경 쓸 일
이 없다는 것이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비록 석회질이 많지만 훈자왕국의 식수는
카라코람 산맥의 만년설이 녹은 물이다), 그
리고 신선한 야채와 공해 없는 곡식을 먹고,
신경 안 쓰고 사는 이곳 주민들이 장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비록 문명의
혜택 없이 살고는 있지만 자연의 넉넉한 품
에서 자연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훈자인들은
어쩌면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도시인들
보다 더 행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재미있는 컴퓨터, 컴퓨터랑 친해지기

인터넷서퍼 이 수 영 sy_lee@cultizen.co.kr



속에 도통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본체에 언제나 무뚝뚝한 네모난 얼굴의 모니터, 밋밋한 글자들을 찍어내는 키보드와 종종 말을 안 듣는 마우스, 혹시 당신이 컴퓨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은 이렇게 재미없는 것들 아닌지. 물론 뭔가 대단히 복잡하고 나름대로 섬세한 부속들로 이뤄져 있다고 짐작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컴퓨터는 그저 책상 한 켠의 사무기기이고 다른 공간으로 통하는 수단일 따름이다. 가끔씩 고장을 일으켜 끔찍한 공포상황을 조성하지 않는다면야 사람들은 언제까지고 컴퓨터 그 자체에는 무관심한 채 실컷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비단 컴퓨터 기술자나 파워유저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에 엄청난 열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코리아하드코어 피시 모디파이(koreamod.com) 사이트에 모여드는 이들은 케이스를 투명 플라스틱으로 바꾸기도 하고 본체의 열기를 식혀준다면 어항을 결합시키거나 집안의 오디오와 3단 분리로 결합시키는 등,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컴퓨터를 꾸며댄다. 단순히 컴퓨터 부속을 새로 갈거나 새로운 주변기기를 사용해 보는 취미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 그렇다고 이들의 커뮤니티가 오로지 피시광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거의 예술의 수준으로 승화된 피시 개조작품들은,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충분히 감상용으로 즐길 만하다. 또한 이곳 피시 갤러리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피시를 간단히 꾸밀 수 있는 힌트를 얻어갈 수도 있다.

반면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보다는 그 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애정을 기울이

는 사람들도 있다. 피시의 기본 운영체제인 윈도의 이런저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사용해 보며 즐거워하고(www.winbbs.com), 이것저것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들을 깔아보면서 인터넷에 '소프트웨어 감상문'을 올리는 사람들(www.bomul.com). 그러다 프로그램들이 너무 복잡해지면 다시 포맷하여 순백의 하드디스크에 다시 처음부터 깔아보는 자체도 이들에겐 하나의 유희이 된다.

이 정도까지의 시간을 투자하기는 힘들더라도 바탕화면, 즉 데스크탑 이미지를 바꿔보는 등 자잘한 재미를 즐기는 방법도 있다. 탑테마(www.topthemes.co.kr) 사이트에는 컴퓨터 화면과 프로그램 창, 바로가기 아이콘 모양을 바꾸어 꾸미는 다양한 소재의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붉은 악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로고와 축구 아이템들을 응용해 컴퓨터 화면을 멋지게 장식해볼 수 있다. 험준한 산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사람이라면, 멋진 배경사진에 탐색기는 망원경으로 휴지통은 배낭으로, 네트워크 환경은 나침반으로 바뀌는 로키산맥 테마를 다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마다 잦은 에러와 불편한 사용자 환경에 짜증이 나려고 할 즈음에는 이스터에그(www.eegg.pe.kr) 사이트를 방문해보자. 이스터에그, 즉 부활절달걀이란 촉박한 일정에서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은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속에 일부러 만들어 숨겨놓은 일종의 에러 현상이다.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메뉴를 차례로 조작하면 개발자의 사진과 이름이 뚱뚱 떠다니게 한다든가, 워드에서 특정단어를 연속해서 치면 핀볼게임이 실행된다.Ⓜ

풀어라, 그러면 다시 만든다

(암호의 세계\루돌프 키펜한 지음\이지북)

KBS
국제부
기자
이진성

는 말이 지나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이 책은 이처럼 복잡하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암호의 실재를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풀이한다. 그래서 원래 독일어로 씌어진 책의 영어판 제목도 'Code Breaking : A History and Exploration(암호 깨부수기: 역사와 연구)'다.

사지선다에 익숙한 우리, 모르면 찍어라

알파벳의 위치를 바꾸어 전혀 연결되지 않는 문자를 나열한 것처럼 위장한 암호문이나 알 수 없는 숫자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난수 표는 이미 들어봤을 것이다.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부호들이 어떻게 뜻을 가진 단어, 혹은 문장의 조합으로 해독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독자는 이 책만큼은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나가길. 책은 그들 암호를 누가, 어떤 용도로 만들었으며, 어떻게 풀렸고, 들통나지 않기 위해 다시 어떤 기능들이 덧붙여졌는지 일화를 중심으로 보여준다.

다 보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읽고 나면 3천년 전 씌어진 성경이 미래의 일을 예언한 암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 담긴 『바이블 코드』(황금가지)도 겁 없이(!) 읽고 싶다는 생각까지 절로 들지 모른다.

일종의 약속이자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암호는, 보통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원활한 의사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이 메시지를 알아먹게끔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 까닭에 암호는 오래 전부터 적을 속여야만 했던 세계 곳곳의 전쟁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카이사르가 키케로에게 보낸 은밀한 편지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주고받았던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난잡한 숫자에 이르기까지. '암호의 발전사'는 '인류 전쟁의 발전사'와 궤를 함께 한다

암호의 홍수시대, 이곳이 바로 전쟁터?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암구호(暗口號)를 통해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판소리에선 창자(唱者)와 고수(鼓手)가 부채와 북채를 이용하여 관객들 몰래 서로의 실수를 바로잡는데 암호가 쓰이기도 했다. 인터넷에선 자기 정보의 보존을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중요 문서엔 패스워드를 걸기도 하고, 나아가 전자서명 인증제가 도입되면 좀더 정교하고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체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사회에 산다.⬇

위대한 가르침

제1전투비행단 중령 이 면 우



푸르른 산하와 더불어 온통 울긋불긋 봄을 희롱하는 화초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오월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먼저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불효의 한스러움을 달래며 읊조려 보는 시가 있다.

“천리라 내 고향은 첩첩 산골 저 쪽인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언제나 꿈속이네. 한송정가에는 외로운 달빛이요, 경포대 앞에는 한때의 바람이라. 모래밭의 갈매기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물결 위의 어선들은 오락가락 하는데, 어느 때 다시 고향 길 밟아, 색동옷 입고 춤추며 부모님 곁에서 바느질할까?”

조선조의 대학자인 율곡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읊은 ‘사친(思親 : 아버지를 생각하며)’이라는 시의 전문이다. 부군을 따라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인데 아버지를 뵈지 못하고 또한 즐겁게 해 드리지 못하는 자식의 심정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그런 시이다.

유난히도 오월의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부끄러울 정도이나 햇살은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온 누리를 따사롭게 비추어 주고 있다.

옛 성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햇살을 ‘애일(愛日)’이라 했고 그런 햇살이 나날이 다시 비취짐을 하늘의 큰 은혜로 알고 살아갔다. 특히 ‘애일’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날이 지속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런 해(日)를 사랑스럽다고 표현한 것이다. 매일매

일 같은 모습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저 사랑스러운 햇살 덕분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내가 효도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왔구나”하는 마음에 하루해를 아껴가며 부모님과 조상들께 정성을 다하였던 것이다.

조선조 중종때의 문신인 농암 이현보는 아버지를 위하여 ‘애일당(愛日堂)’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매양 좋은 때와 좋은 절후(節侯)에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이 애일당에 모여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희재(戲綵 : 어린아이처럼 재롱 떠는 일)하며 아버지를 즐겁게 해 드리기를 삼십여 년이나 하였다.

한편 채의오친(綵衣娛親)이라는 고사(故事)가 있는데 이는 중국 고대 주나라의 노래자(老來子)가 그의 나이 70세임에도 불구하고 늙으신 부모님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떨며 응석을 부려가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일화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듯 우리의 선현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섬기기를 지극 정성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자께서는 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를 편하게 해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가? ㊦

대기오염과 황사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이 연간 45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인구 한 명당 피해 비용은 연평균 97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황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황사현상은 봄철 중국대륙이 건조해지면서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등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및 황하 상류지대의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것이다.

황사는 특히 급속한 공업화로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중국을 경유하면서 오염물질이 섞여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황사가 발생하면 석영(실리콘),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이 포함된 흙먼지가 대기를 황갈색으로 오염시켜 대기의 먼지량이 평균 4배나 증가하고, 한 사람이 흡입하는 먼지의 양은 정상시의 3배에 이르고 금속성분도 종류에 따라 2배에서 10배가량 많아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작은 황진이 사람의 호흡 기관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안질환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필요하다.

황사현상이 지속되면 제일 먼저 눈병환자가 급증한다. 황사와 봄철의 건조한 공기는 자극성 결막염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키기 쉽다. 보호안경을 끼고 작업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과 콧속을 깨끗이 씻어낸다. 결막염 초기 증세가 의심되면 깨끗한 찬물에 눈을 대고 깜빡거리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증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즉시 군의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재채기가 계속되고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코막힘 등이 나타난다.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여 콧물이나 코막힘을 줄일 수 있으나 줄이거나 입이 마르는 부작용이 따른다. 코점막 충혈을 완화하기 위해 혈관 수축제를 콧속에 뿌리기도 한다. 크로몰린 소디움을 미리 코에 뿌려주면 예방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천식은 알레르기 원인물질이 기관지 전막을 자극해 기관지가 좁아지는 과민반응 때문에 나타난다. 황사가 폐로 들어가면 기도 점막을 자극해 정상적인 사람도 호흡이 곤란해지고 목이 아프다. 특히 기관지가 약한 천식환자나 폐결핵 환자가 황사에 노출되면 호흡이 아주 곤란해지는 등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싱그러운 초록빛 5월에



73기상전대 총령 염영경

‘네 눈망울에서는 / 초록빛 5월 / 하이얀 쫄레꽃 내음새가 난다. / 네 눈망울에서는 / 초롱초롱한 / 별들의 이야기가 있다. / 네 눈망울에서는 / 머언 먼 뒷날 / 만나야 할 뜨거운 손들이 보인다.’ (신석정, 「네 눈망울에서는」)

4월이 황사와 산불로 어려웠던 달이라면 5월은 꽃내음 가득한 따스한 햇살, 새 생명과 소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이다. 5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이 고기압은 중국 내륙에서 분리되어 월평균 5~6회 정도 영향을 준다. 또한 저기압의 영향도 빈번하여 날씨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월평균 강수량은 100mm로 전 달에 비해 조금 늘어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가뭄을 이겨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양이니 물절약에 적극 동참해야겠다. 내륙지방의 안개와 서해안의 해무(海霧)가 늘어나면서 비행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은 평균 17℃로 야외활동을 하기에는 최적의 날씨가 이어진다. 행락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차량 이용이 증가하니 안전사고에도 특별히 유의해야겠다. 또한 이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등 12일의 기념일이 있어 연중행사나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로 우리 마음을 바쁘게 한다. 절기로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입하(立夏)가 6일이며

본격적으로 농사철로 접어들고 보리가 익어가며 부엉이가 울어 엔다는 소만(小滿)이 21일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싱그러운 산내음 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입하에 이르면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만물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한다. 나뭇잎을 활짝 피운 나무들은 녹음을 더하고, 아직 잎을 피우지 못한 나무들은 마지막 싹을 피워 푸르름의 여름으로 넘어가고자 몸부림친다. 산에는 땀뭍기 울어 예고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돌아나 입맛을 돋우는 5월은 정말 계절의 여왕이다. 상큼한 5월의 향기를 간직하며 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라일락 꽃향기가 무척이나 향기롭게 묻어나는 시절. 싱그러운 풀피리 소리와 훈풍에 실려오는 산은 더욱더 푸르름으로 채색되고, 들에는 수많은 꽃들이 소리를 지르며 피어난다. 농가에서는 못자리 돌보기 등 농사일이 한창이며, 감자꽃이 피기 시작한다. 푸르른 녹음에 취해 스치고 지나갈지도 모르지만, 어버이날이 8일이고 스승의 날이 15일이다. 어버이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의미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나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띄워 보내드리는 것은 어떨는지. ☘

가라사대, 복수는 우리 것

영화평론가/제15호성비행단 중위 김지훈

〈복수는 나의 것〉은 잔인하다. 오죽하면 관람 중에도 여남은 관객들이 “못 볼 걸 봤다”라는 표정으로 황급히 극장을 빠져나갔을까. 시체 부검 장면에서 정작 시체는 보여주지 않은 채 관객의 청각을 자극하는 살 절개하는 소리. 누나의 신장 장기매매를 빌미로 사기를 친 장기 매매단에 대한 응징의 대가로 신장을 그대로 빼어 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 그리고 동진(송강호 역)이 자신의 딸을 죽인(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류(신하균 역)를 응징하기 위해 신하균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하여 수장(水葬)시키는 장면. 〈공동경비구역 JSA〉로 한국 블록버스터의 대표적 계보를 이룬 박찬욱 감독은, 그때는 메이저 시스템에 숨겨왔던 자신의 취향을 발휘하기라도 하듯 마음껏 폭력과 응징의 칼날을 들이댄다. 그 느낌은 피이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복수는 나의 것〉은 선지피와 찢겨진 살덩어리의 과잉으로 관객의 평온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고어(gore) 영화가 아니다. 〈복수는 나의 것〉의 폭력 이미지는 그 이상을 겨냥하고 있다. 폭력은 이 사회의 불균등한 경제적, 계급적 관계를 드러내는 수단이자 정상적 상황에서는 소통할 수 없는 상이한 계급들이 충돌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룬다. 침묵이란

장벽과 공장의 커다란 소음에 이중적으로 둘러싸인 류의 환경과, 애지중지하는 딸을 둔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 동진 사이의 거리는 평상시에는 아득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들은 폭력에 의해 현재의 일상을 뒤흔드는 강렬한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폭력의 순환은 철저히 물질적이며 냉혹한 자본의 불균등한 순환, 그로부터 야기되고 누적되는 가해와 피해의 관계와 일치한다. 폭력이 선천적 기질이나 본성의 문제로, 혹은 쾌락적 불거리로 제시되지 않고 치밀하게 계산된 적나라한 모습으로 관찰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폭력이 물질적인 구조 속에, 살과 피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면 복수의 근원 또한 비정상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복수는 나의 것〉에서 동진과 류는 서로 다른 이유로 복수의 자아를 자임하지만, 그들은 철저한 무표정과 기계적 침묵으로, 마치 아무런 자의식도 없는 것처럼 무기를 휘두른다. 결코 그들에게 극악무도하거나 천인공로하다는 말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복수의 부채는 동진과 류(그리고 당연하게도 복수를 자행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인 영미) 모두에게도 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 모두를 바깥에서 둘러싼, 이 사회의 차가운 물질성 속에 숨어 있다.Ⓜ



환경의 발전

공군본부 환경과

매일매일 섭취하는 음식물,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 우리의 건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은 예민한 환경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피하기 어려운 유해환경 속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숨 한번 크게 쉬어 봤으면

생선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거나 과일이나 야채에 살충제 잔류물이 남아있다거나 하는 예는 일일이 다 들 수가 없을 정도이다. 또한 가공식품의 경우 어떻게 공장에서 처리되고 만들어져 우리 밥상에 놓이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농산물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경작되고 어떤 경로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알 수가 없다. 공기 속의 화학물질 농도는 점점 높아져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는 날이 빈번해지고,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 개발되는 고분자 화학물

질이 우리의 화학적 관계망과 세포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각종 피부질환, 면역질환, 출생결함, 호르몬 및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 암의 증가 등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질병들의 출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환경의 발전, 인간의 발전

대기오염이 심한 멕시코시티 도심 아이들의 지능이 해마다 떨어진다는거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나 기형가축, 식물피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황사현상. 단순히 중국의 사막과 황하 유역에서 발생하는 모래먼지가 아니라 장석, 석영, 알루미늄, 구리,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빨래와 음식물은 물론 대기까지 오염시켜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및 각종 안질환을 유발시킨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인공적이고 복잡한 환경에서 병든 자연을 치유하기 위한 우리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연극이 끝난 후에, 그녀는 비행단으로 돌아온다

제20전투비행단 소위 김 세 현



지난 달, 서산시 문화회관 소극장에서는 특별한 무대가 열렸다. 무대의 주인공은 현재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무원(단본부 계획처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란씨. 1995년부터 연극무대에 오르기 시작한 그녀에게 이번 연극 ‘로젤’은 7번째 작품이다. 하지만 직장생활과 결혼, 출산 등으로 2년 반이라는 긴 공백기간을 가진 그녀에게 있어서 이번 연극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잘하고 직업적으로 한다고만 해서

프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프로죠.”



“이번 공연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연극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과, 혼자서 모든 표현을 해야 하는 모노드라마(Mono-drama)라는 장르에 대한 시도자체가 저에겐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어요.”

이번 공연을 준비한 극단 ‘동지’는 1991년 창단하였고, 스태프 대부분은 연극활동 외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연극단체

다. 항상 대본을 끼고 식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가며 연습했다는 김수란씨. 주말에는 연기지도를 받기 위해 서산에서 여수까지 왕복하면서 느낀 점도 많다. “모든 것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열악한 문화환경과 지원, 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현재 지방문화는 정체(停滯) 정도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번 연극을 통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지방문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극 ‘로젤’은 여성을 주제로 한 연극이다. 사회의 희생양이 된 자신의 삶을 절규하는 한 여성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로젤’은 모노드라마라는 형식상 모든 스토리가 주인공 공 로젤(김수란 분)의 독백으로 이어진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연극을 계속할거라는 김수란씨는 앞으로 있을 여수공연을 포함해 전북 연극제, 여수 국제연극제 등의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잘하고 직업적으로 한다고만 해서 프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프로죠.” 그녀의 얼굴엔 어느새 무대조명보다 밝은 미소가 번진다.Ⓜ

공군의 미래 청사진, 제가 그려내겠습니다

- 여군 최초 공사감독관 91기지건설전대 김지경 중위 -

91기지건설전대 중위 신 동 환

노란색 안전모를 쓴 공사감독관이 예리한 눈으로 공사현장 이곳저곳을 살핀다. 둘둘만 도면을 능숙하게 펴가며 1센티미터의 오차도 찾아내는 치밀함 앞에 부실시공이란 있을 수 없다. 자신

의 내부를 훤히 드러낸 시멘트와 철근구조물 사이로 91기지건설전대 김지경 중위가 얼핏 보인다. 그녀가 바로 이 건물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공사감독관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여군 최초의 여성 공사감독관. 사관후보생 105기 김지경(인하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중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공사감독관은 시설물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을 책임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시공에 필요한 시공도 및 공작도 작성을 결정하고, 재료의 배합, 재료견본을 선별 결정하는 등 설계서를 검토한다. 또한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며 설계도서 및 설계감리에 따라 시공을 감독하게 된다.

공군의 시설을 책임지는 공사감독관이 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설공사분야의 기초지식을 익히는 공군 교육사령부 특기교



육에서부터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자질 및 지식을 습득하는 공사감독관 초급과정에 이르기까지 8주가량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큰 규모의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2년

실무경험이 필요하며 공사감독관 중급과정을 마쳐야 한다.

김지경 중위가 임관 후 처음 맡았던 업무는 교육사 여군부사관 내무반 도면수정과 내역산출이었다. 얼마전 교육사 방문 중 여군부사관 내무반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내가 힘써 설계한 도면, 내역서들이 하나의 창조물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시설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고.

부실시공 제로화의 청사진

김지경 중위는 91기지건설전대 설계과에서 1년간 근무하며 익힌 설계지식을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감독하게 되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공사감독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 만연해 있는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청렴성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사용자 중심의 건실시공을 통해 사용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설인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

꽃내기 공보초년생 국방일보 방문기

제18전투비행단 중위 윤 형 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그 생생함으로 기억되는 4월의 첫날 아침, 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항상 발로 뛰는 공보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제18전투비행단 정훈실의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였다. 잘 짜여지고 다듬어진 보도자료라 할지라도 기자의 시각에서는 궁금증을 가지기 마련. 그러기에 이른 새벽 단잠을 박차고 일어나 달려나가야 하는 게 공보장교의 사명인 것을.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소위 대외보도로 세상의 관심을 끄는 대박의 환희가 공보장교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한건 한건 잘 버무려져 포장되어 나오는 국방일보의 부대소식은 살아 숨쉬는 비행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

길가에 만발한 벚꽃의 환영 퍼레이드를 받으며 도착한 국방일보에는 공군 담당 조진섭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반갑게 맞아주는 조기자의 미소가 먼저 다가왔다. 춘음을 다투는 바쁜 상황 속에서도 여유로 상대를 배려하는 그의 후한 인심이 장거리 출장의 피곤함을 싹 가시게 한다.

귀를 쫓긋 세우며, 발을 동동 굴리는 공보장교

공보장교와 기자의 만남은 늘상 그렇듯이 불꽃튀는 공보담(公報談)으로 시간의 흐름을 놓치곤 한다. 비록 공보초년생의 미진함이 있겠지만, 나도 이날만큼은 당당히 공보정신으

로 무장된 정훈장교의 전문성을 가지고 상호간의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늘 상 있는 행사나 훈련소재 보도는 앞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윤중위도 더욱 더 차별화된 소재를 발굴해야 할 겁니다.”

조기자는 가져간 몇 건의 보도자료 중 ‘컵라면 전도사’ (4월 9일자 국방일보 보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소재는 어느 부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훈장교의 노력이 가미된 미담사례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대외보도로

세상의 관심을 끄는 대박의 환희가

공보장교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한건 한건 잘 버무려져 포장되어 나오는

국방일보의 부대소식은 살아 숨쉬는 비행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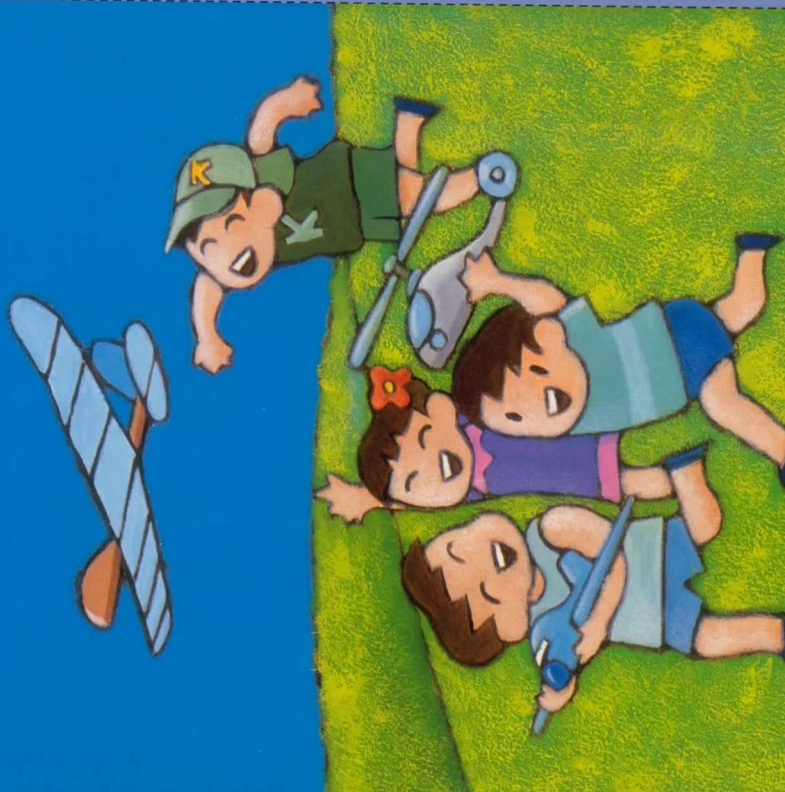
는 국방일보를 더욱 화려하게 만든다”며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따뜻한 국물이 매력인 조기자의 단골메뉴 라면과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조기자는 사진보도의 중요성을 말했다. “생생한 현장의 순간을 고스란히 한 장의 사진에 표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無에서 有를 빚는 공보장교의 기획력으로 우수한 보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군지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공군에
바라는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내주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독자엽서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로! 퍼즐로! 정답]

보내는 사람

이름

소속(주소)

전화번호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일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호 6231-7, (02)506-6231-7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
상품을 드립니다.



잘 짜여진 보도자료로 오보를 방지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말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공군'을 신문지상과 TV화면에
올리기 위한 공보장교의
하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도사진 촬영을 기대하겠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자리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친절함이 부대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도 잊혀지지 않았다.

두려워 말고 발품을 팔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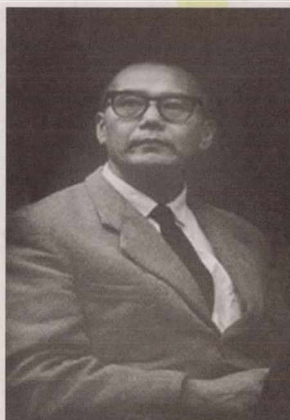
봄날의 상큼함같이 새로운 언어로 참신하

게 다져진 군 관련기사가 신문지상에 오르기까지 보도사안의 발굴, 기사작성 등 공보장교로서 해야 할 일들은 의외로 많다. 지난 1년여 동안의 비행단 공보경험에는 수시로 10여개 이상의 지역 언론사를 방문하고 담당기자에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일일이 설명을 해가며 기사의 가치를 높이는 수고스러움이 뒤따랐다.

하지만 잘 짜여진 보도자료로 오보를 방지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말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공군'을 신문지상과 TV화면에 올리기 위한 공보장교의 하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웁~

박수근(朴壽根)

1914년 강원도 양구 출생. 계속된 가난으로 인한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잡았다. 12세 때 밀레의 <만종>을 보고 화가가 될 것을 결심, 독학으로 공부를 계속하여 18세인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채화 <봄이 오다>로 입선을 하게 되어 화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6·25 전쟁 후 한동안 미8군 PX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후 국전에 수차례 입선과 특선을 하였고 이때부터 가난한 이웃을 소재로 하여 평면적이고 독특한 마띠에르(질감)를 가진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화강암의 거친 질감을 화폭에 옮겨 그 위에 공간감을 무시하고 극히 단순한 형태와 선묘를 이용한 평면화된 대상을 모노톤의 색채로 그려내어 마치 바위에 각인된 듯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1965년 51세의 나이로 사망. 주요작품으로 <나무와 두 여인>, <모자(母子)>, <절구질하는 여인>, <농악> 등이 있다.



이달의 호국인물

육탄 10용사

1948년 개성 정면의 38선 경비임무는 제1사단 제11연대가 맡고 있었다. 이듬해 북한군 제1사단 제3연대 병력 1천여명은 아군진지에 불법공격을 가하며 급습, 아군은 중과부적으로 292고지, 유엔고지, 155고지, 비둘기고지 등을 빼앗기고 말았다. 아군은 즉각적인 반격태세를 갖추고 공격을 가하였으나 지형상의 어려움으로 작전에 실패, 이에 특공대를 선발하여 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서부덕, 김종해, 윤승원, 이희복, 박평서, 황금재, 양용순, 윤옥춘, 오제룡 등 9명의 자원자를 특공대로 구성하였다. 특공용사 9명은 81밀리 박격포에 수류탄을 장치하고 적 진지에 돌진, 장렬히 산화함으로써 비둘기고지와 유엔고지를 탈환하게 된다. 이어 292고지 탈환작전에도 박창근 하사가 특공대로 지원, 장렬히 산화함으로써 이들을 육탄 10용사로 칭하게 되었다.



이달의 독립인물

송학선(宋學先)

1893년 서울 출생. 17세때 이등박문을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따라 자신도 조선총독을 처단하기로 결심하였다. 1926년 3월 15일 윙희황제가 붕어하자 조선총독이 조문할 것이라 판단하고 때를 기다리던 중, 18일 일본인 3명이 탄 자동차가 창덕궁으로 들어가자 조선총독이 탄 것으로 생각하고 차가 나오길 기다려 자동차에 뛰어 올라 2명을 척살하였다. 그러나 후에 차내에서 척살한 2명이 조선총독 일행이 아니었음을 알고 통분을 금치 못하였다. 일본인 재판관이 “피고는 어떤 주의 자인가, 사상가인가”라고 묻자, “나는 주의자도 사상가도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우리 민족을 압박하는 놈들을 백번 죽여도 마땅하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다. 1927년 5월 19일 사형장에서 순국,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월드컵 특별 전세기 운항

건설교통부는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김포공항에 월드컵 특별 전세기 운항을 허용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김포공항에 국제선 특별 전세편 운항을 허용하되 FIFA 관계자, 월드컵 출전팀, 각국 축구협회 임원 및 관계자, 월드컵 관람객 및 가족수송 등 월드컵 대회 목적에 한정되어 운영된다.

대한항공, 월드컵 대비 호신술 교육

대한항공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기내 항공안전을 위해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에는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및 기내난동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승무원들까지 직접 호신술 교육을 받게 된다.



항공계

소식

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 설립

항공대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로 항구적인 항공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한국항공안전교육원을 건설교통부 후원으로 개원했다. 항공안전교육원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김포 및 인천공항, 공항공사, 항공사 종사자들은 물론, 정부, 연구기관 등 항공안전 및 보안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수준의 항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운항관리, 안전관리, 항공보안, 공항관리 등 4개 분야, 21개 과정을 갖춘 항공안전교육원은 앞으로 동북아지역 항공안전훈련센터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항공계

소식

한국항공우주산업, 에어버스에 날개구조물 납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로부터 1억달러 상당의 민간 항공기용 날개구조물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날개구조물은 에어버스가 개발 중인 A380 항공기 주날개의 일부분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자체설계로 생산, 향후 20년간 에어버스에 공급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에어버스가 A380 항공기 생산을 마칠 때까지 수주물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라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현재 매출의 15% 정도인 민수부문비율을 3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A380 항공기는 현재 미국 보잉사가 독점하고 있는 대형항공기 시장진출을 위해 개발 중인 555인승 초대형 항공기로 오는 2006년부터 취항할 예정이다.

제8회 항공전략 국제학술 심포지엄

공군대학에서는 오는 5월 8일(수)과 9일(목) 세계일류 정예공군 건설과 항공전략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8회 항공전략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협력 안보시대의 항공우주력 역할'을 주제로 개최합니다. MacGhee 미공군 교리본부 사령관, Bennett RAND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국내외 항공우주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루어지는 이번 심포지엄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주제발표 : 5월 8일(수) 09:30~17:00

- 토 론 : 5월 9일(목) 09:00~12:00

▶ 장 소 : 자운대 충무관(주제발표), 공군대학 대강당(토론)

문의 : 자)4220~2, 042)870-4220~2



공군참모총장배 축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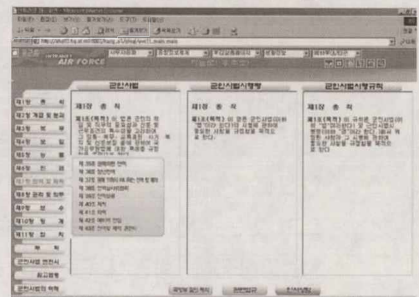
2002 한·일 월드컵을 맞아 장병 및 군무원의 체력을 증진하고 범국민적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공군 참모총장배 축구대회(본선)가 오는 5월 23일(목) 전년도 우승부대인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지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팀의 열띤 경기가 펼쳐질 공군참모총장배 축구대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호)1275

군인사법령 인사상담 홈페이지 개설

전투발전단 군제연구실에서는 군인사법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한 '군인사법령 인사상담' 홈페이지를 공군 인트라넷에 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인사상담 홈페이지는 군인사법령 뿐만 아니라 유사기관 법령(국가공무원법, 소방·경찰법, 병역법 등)도 조항별로 비교 검토할 수 있으며 1962년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군인사법, 과거판례, 국방부 질의해석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호)1134, 02)506-1134, 042)552-1134



『햇불』지 원고 모집

공군 정신전력의 산실인 공군 보라매수련원에서 정신전력/안보연구를 위해 매년 발행하는 『햇불』지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신교육의 일선에서 연구·교육활동에 주력해 온 보라매수련원은 2002년을 맞이하여 더욱 알찬 교육으로 공군 정예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사계 전문가 여러분들에게까지 문호를 넓혀 원고를 모집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성)5525, 043-290-5525

월드컵 특집 퀴즈로! 퍼즐로!

①②③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5월 17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달의 문제

	1	2		3					
4						5		6	
7						8			
		9		10					
11		②		③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21			

지난호 정답/녹색공군

			공③	식			색②	안	경
그				목			연		
림		녹①		일		사	필	귀	정
자	동	차				유			비
	치			인		재		목	사
	미	인	박	명		산	림	육	
		당		재				탕	
지	하	수		천	동	설			예
령							수	제	비
이	반	로	드	리	게	스			군④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충북 청원군 사서함 308-16호 현병대대 김인종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산곡남초등학교 홍성덕
전남 목포시 연산동 주공APT 102-806 광명훈
경남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공과대 문갑술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253-22 정희정

가로열쇠

1. 브라질의 축구 황제, 현역시절 모두 92번의 해트트릭을 달성하였답니다. 맞을래?
3. 우리나라 축구선수를 보면 팔에 노란 완장을 하더군요. 이 사람은 팀의 무엇일까요?
7. 일본 축구대표인 나카타가 소속되어 있는 팀. 세리에A 소속이지요.
8. 빗장 수비의 대명사
9. 공을 몰고 가는 것
11.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감독의 아들이며, 현재는 국가대표팀 공격수로 활동 중입니다.
12. 축구영웅 완초페. 카리브해의 작은 고추. 북중미의 새로운 축구맹주
16. 축구의 수문장. 이거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17. 응원은 역시 이게 최고. 자기 차례가 되면 두 손 번쩍 들고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
20. 아프리카의 강호. 폴란드의 축구영웅인 울리사데베가 이 나라에서 귀화했지요.
21. 적토마라는 별명을 가졌던 우리나라의 축구선수

세로열쇠

2. 루이스 피구, 히바우두 등이 뛰고 있는 스페인의 축구명가
3. 선수와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는 사람. 검은 옷. 빨간 카드 줄까~ 노란 카드 줄까~
4. 국제축구연맹
5.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미드필더로 루이스 피구와 함께 공격을 이끌지요.
6. 축구보다 난동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 성격 좀 고쳤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
10. 지난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수비수를 상대로 축구공을 양발에 넣고 '쌍썸'을 했지요. 에르난데스와 함께 멕시코를 이끄는 공격수
11. 차범근 전 국가대표감독이 독일에서 일으킨 불
13. 최종 수비수
14. 아프리카의 신홍강호. 시드니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나라. 대표선수로는 로저 밀러
15. 아르헨티나의 축구 신동. 두 번의 약물복용 경력. '86년 월드컵 '신의 손' 사건
18. 엘로카드의 의미. 치즈가 아닙니다.
19. 중요한 국제대회 때마다 부상으로 빠진 황선홍 선수를 일컫는 말. ○○의 스트라이커



드디어 월드컵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축구를 사랑하는,
그리고
16강 진출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함성이
벌써부터 들려오는 듯 합니다.

16강 진출.
하지만 그것이 한국축구의
영원한 목표일 수는 없듯이
조국영공을 지키는
공군의 목표에도
끝은 없습니다.

그라운드엔 태극전사
하늘엔
우리 공군이 있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공군이 앞장서겠습니다.
코리아팀 파이팅!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